



123호 (2023년 봄호)

by 사무처 posted **MAR 10, 2023**

SEOUL NATIONAL UNIVERSITY

HIGH SCHOOL ALUMNI NEWSLETTER



서울시대부고

2023 봄호 제123호 동창회보



신임
총동창회장
이진형 26회



선농축전
5월 14일
열린다



눈 떠보니

졸업한 지

60년

50년

40년

30년



신임 청구회 회장
오호진 30회



74세
톱 시니어
모델 '리송'

이해자 21회



동문 핫플레이스

카페 로이테 강병현 29회
카페 데스틸 신용학 32회

챗GPT에게
사대부고 평판
알아보니

사진으로 본
사대부고
부산피난시절







한양사이버대학교
www.hycu.ac.kr



명문한양의 온라인캠퍼스

No.1 한양사이버대학교



한양사이버대학교

서비스품질지수 8년 연속 1위
국내 최초 사이버대학원 설립
교육브랜드 17년 연속 대상
원격대학평가 전 영역 최우수 등급

한양사이버대학원
2023학년도 2학기 석사 모집
2023년 5월 예정

문의전화 : 02)2290-0700 홈페이지 : gsgo.hycu.ac.kr

한양사이버대학교
2023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모집
2023년 6월 예정

문의전화 : 02)2290-0082 홈페이지 : go.hycu.ac.kr



그림·덧글씨: 박병철(36회)

친구라는 이름은 듣기만 해도 참 좋습니다.
친구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분이 바로 떠오르시나요?

친구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류안진 시인의 '지란지교를 꿈꾸며'라는 시가 떠오르고, 죽마고우인 오성과 한음, 거문고 소리를 들어줄 친구를 잃어줄을 꿇었다는 백아절현(伯牙絕絃)의 백아와 종자기, 관포지교(管鮑之交)의 관중과 포숙아의 두터운 우정이 기억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 아는 사람은 많은데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시나요?
그리고 그중에 “무슨 생각이든 안심하고 말할 수 있는 친구”는 몇 명이나 될까요?

내 이야기를 공감하며 잘 들어주고 내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며 믿음이 가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든지 달려와주는 내 편이 되어주는 든든한 사람이며 오랜만에 만나도 반가운 그런 친구를 가졌다는 것은 큰 행운이고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친구를 만나면 내 속에 있는 이야기가 술술 나오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 친구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정은 산길과 같아서 사람이 오가지 않으면 풀과 나무가 자라서 길이 없어진다.”는 옛글이 생각납니다.
우리 오늘은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소원했던 친구에게 전화로 안부 인사 해보면 어떨까요?

편집위원 일동

CONTENTS 목차

NEWS &

- 04 종합뉴스 선농축전 5월 14일 열린다 외
- 09 사랑의 봉사단과 이웃을 행복하게 하실래요 외
- 10 챗GPT도 천하부고를 알아보네요
- 12 회원동정
- 14 미주알 고주알
- 16 신간안내

PEOPLE

- 19 김명국 (6회) 서울대 치의대 명예교수 소장품전
- 20 이진형 (26회) 신임 총동창회장
- 22 이해자 (21회) 톱 시니어 모델 '리송'이 저예요
- 26 오호진 (30회) 청구회 신임 회장

MEMBERS & BRANCH

- 29 졸업 60주년 15회
팔순에 떠나는 졸업여행 설레답니다
- 30 졸업 50주년 25회
'노마드 25기'의 전성기는 지금부터
- 32 졸업 40주년 35회
그저 바라만 봐도 좋은 동기를
- 34 졸업 30주년 45회
우리들은 지금 화양연화(花樣年華)
- 35 졸업 20주년 55회
우리 20년째 고교졸업반
- 36 동문 핫플레이스
신용학(32회) 카페 테스트
- 38 강병현(29회) 카페 로이테
- 40 지회소식
- 46 동기화소식
- 52 2023년도 신임 기별 및 지회 회장단
- 54 임원회비 및 연회비 납부자 명단

ALMA MATER NEWS

- 56 서울사대부고를 졸업하며
- 57 75회 졸업생 명단 / 이제 총동 가족이 되었네요
- 58 모교소식





선농축전 5월 14일 열린다

**모교 운동장에서 25회, 35회, 45회 축하공연
밴드 공연, 손글씨 써주기 등 다양한 행사 마련**

올해로 30회를 맞는 부고인들의 영원한 축제, 선농축전이 오는 5월 14일 중앙동 모교 운동장에서 개최된다. 지난해에는 따사로운 봄 햇살을 맞으며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선농축제'. 올해는 더 활기차고, 신바람 나는 축제를 기획하고 있다. 제30회 선농축전은 올해로 졸업 50주년을 맞는 25회부터 40주년(35회), 30주년(45회)을 맞는 동기회의 장기자랑이 펼쳐진다. 노래와 춤, 밴드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과 함께 프

리마켓, 푸드 트럭, 손글씨 써주기, 레이저 사격 체험 등이 운영되며, 동문들에게 푸짐한 선물이 제공되는 레크레이션도 준비되어 있다. 선농축전에 앞서 천장산 하늘길 산책도 진행될 예정이다.

선농축전에서 빠질 수 없는 시상식인 최다 참가상에는 상금도 지급한다.

이진형 총동문회장은 "지난해에는 1300여 명의 동문이 참석을 해 부고인의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었다"라며 "올해도 많은 동문이 참석해 즐겁고 재미있는 우리들만의 축제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모교 재학생 5명 미국 연수 프로그램 재개

**스탠포드, UCLA, 버클리 등 서부대학 견학
애플, 구글, 페이스북, 시스코 등 방문 예정**

모교 재학생의 미국 연수 프로그램이 올해 재개된다. 미주 연합회와 모교, 총동창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2023 꿈을 향한 도전' 프로그램은 애플, 구글, 페이스북, 시스코, 마이크로 소프트 등 IT기업과 RIOT 게임사 등의 방문을 비롯해 스탠포드, UCLA, 버클리 등의 미주 서부에 있는 대학들을 견학할 예정이다.

재학생 미국연수프로그램은 2018, 2019년에 남가주선농장학재단과 미주연합회가 주축이 되어 모교 재학생을 선발하여 인솔 교사와 2주 정도의 미국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했었다.





서울대 구성원으로서 사대부고 소속감 제고 논의

모교 발전 간담회에서 TF팀 구성 의견 나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학장 초청으로 '모교 발전 간담회'가 지난 2월 7일 역삼동 대리로 중식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부설학교 현황,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이란 주제로 강준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학장의 발표가 있었다. 강준호 학장은 "부설학교인 서울사대부고가 서울대와 교육계에서 존재가치를 못 만들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미래교육을 실험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서울대 법인화에 따른 교직원들의 인사 순환 문제, 부설학교를 실험학교, 혁신학교로의 위상 강화를 위해 모교의 고유성 및 자율성 보장, 공교육 선도를 위한 예산과 인력의 안정성 확보, 서울대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제고, 모교 발전을 위한 TF팀 구성 등의 의견들이 전개됐다.

이날 간담회에 강준호 서울사대학장, 이화성 서울사대부고 교장, 변주선 전 서울사대 동창회장(12회), 이희범 전 서울



대 총동창회장(19회), 구재옥 서울대 생활과학대 동창회장(19회), 이진형 서울사대부고 총동창회장(26회), 노용오 서울사대부고 학교운영위원장(33회), 김승겸 중경고등학교 교장(38회), 김연중 서울사대부고 동창회사무부장(43회) 등이 참석했다.



이인호 대사



성기학 고문



유인선 고문



김종량 이사장



기우화·당구회 회장단

총동창회 발전을 위한 잇단 간담회

지난해 말 총동창회장으로 선임된 이진형 회장(26회)은 총동창회 발전을 위해 역대 총동창회 임원진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회장은 이인호(7회, 전 KBS이사장), 허수창(14회, 고문), 성기학(17회, 고문), 이희범(19회, 선농과학기술인회 회장), 김종량(20회, 한양대이사장), 유인선(20회, 고문), 이규용(23회, 고문)을 만나 향후 동창회 발전에 대하

여 이야기 나눴다. 또한 동창회 지회 회장들과의 만남을 통해 지회 운영의 어려움과 동창회에서 지원할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올해 졸업한 부고 75회 졸업생과의 만남(사진)을 통해 동창회 소개와 동기회 결성, 지회 가입 등을 독려했으며, 졸업생들의 건의사항도 경청했다.

3월 8일 2023 정기이사회

2023년 1차 정기이사회가 3월 8일 동창회관 선농홀에서 열린다. 정기이사회에는 총동창회 부회장, 이사, 기별회장, 감사가 참석해 2022년 결산안 승인 및 2023년 주요 사업 보고와 각종 현안을 논의한다.

동창회 사랑은 발전기금으로

동창회 발전기금이 잇따르고 있다. 15회 허수창 고문이 200만 원을 찬조한데 이어 15회 박승 동문 50만 원, 26회 윤석균 동문이 40만 원을 전달하였다.



선경희 3월 16일 'ESG경영 강연'에 초대합니다

서울사대부고 선농경영인회(회장 김기명·27회)에서는 3월 16일 양재동 엘타워B1층에서 2023년도 조찬 모임을 갖는다. 이제 기업 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ESG에 관해 정보를 교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강의는 이 분야에 저명한 윤덕찬대표(지속가능발전소 대표)가 강의를 맞는다. 아울러 선경희는 6월 15일 / 9월 14일 / 12월 14일에 2차 / 3차 / 4차 모임을 갖는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TIME TABLE

시간	소요시간	세부내용	담당자
7:00	30분	조찬, 회원사 소개 및 네트워킹	이상민 총무(39회)
7:30	5분	개회사	김기명 회장(27회)
7:35	60분	강의	윤덕찬(지속가능발전소 대표)
8:35 ~	-	장내정리 및 네트워킹	담당자

신청방법

네이버 밴드 댓글로 신청 / 각 기수별 간사 및 선경희에 신청
세미나 식사금액: 5만원

서울 사대부고 선경희

2023년 제1회 조찬모임

- 강사 : 윤덕찬 대표
- 주제 : 성공하는 기업의 ESG 경영
- 장소 : 양재 엘타워(지하 1층 골드홀)
- 일시 : 2023년 3월 16일 (목), 오전 7:00

"성공하는 기업의
ESG경영"

현 지속가능발전소 윤덕찬 대표

- LG화학연구개발 연구원센터장
- 환경산업기술원 산업지원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제3회 선농문학상 출품하세요

시, 수필, 소설 등 7월 31일까지 접수

제3회 '선농문학상' 작품 공모를 합니다. 모교 사랑과 예술적 재능을 담은 옥고를 모십니다. 모집 분야는 시, 수필, 단편소설, 논픽션 등으로 작품 주제에 제한은 없습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삶이 담긴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기대합니다.

■ 모집 분야

- 시 (한시·시조 포함) (매수 제한 없음)
- 수필 (작품 당 A4 용지 1매 남짓, 200자 원고지로 환산할 경우 10매 안팎)
- 단편소설 및 논픽션 등 (A4 용지 5~10매 안팎(글자크기 10포인트))

■ 응모자격 : 전 동창회원

- 각 기별로 한 편 이상 응모해 주세요.
- 미발표 작품, 1인당 2편까지
- 등단 10년 이상 문인은 시상에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시상 내역

- 선농대상: 100만 원(1명)
- 최우수상: 상금 50만 원(2명)
- 우수상: 10만원(5명)
- 특별상: 상장(10명)

■ 접수 마감

- 2023년 7월 31일 오후 5시

■ 당선작 발표 및 시상식

- 2023년 9월 1일(금) 동창회관



■ 보내실 곳

- 이메일: snubu@chol.com / 팩스: 02-588-7872
- 우편: (04600) 서울시 중구 다산로 43 201호, 서울사대부고 동창회관 문학상 담당자 / 02-588-7871

※ 유의사항

- 모든 작품은 컴퓨터 워드 작업으로 작성한 뒤 A4 용지(원고지 아님)로 제출해주세요.
- 제출 작품 앞면에 성명, 응모 부문, 작품 제목, 기수,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 입상작의 저작권은 1년 동안 총동창회에 있습니다. 작품은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테니스 가르쳐 드립니다

장소 서울사대부고 테니스장

일정 매월 2,4주 일요일 오후 2시

문의 선농테니스회 010-5892-7871



몽골원정 떠나는 총동문 산악회

총동문산악회는 오는 6월 10일부터 3박4일간 몽골로 해외원정산행을 떠난다. 해외원정산행 코스는 해발 2265m의 몽골 체체궁봉 등반을 비롯해서 야마트산과 엉거즈산 등의 명산을 방문한다. 또한 몽골 초원과 강을 가르는 승마 체험, 아르야발 사원, 칭기스칸 광장, 이태준 열사 기념 공원, 자이승 승전탑 등 관광지도 둘러본다.



청구회 3월 28일 첫 티샷

청구회가 3월 28일 을 첫 골프모임을 갖는다. 395회를 맞는 이번 모임은 뉴스프링빌CC에서 시작된다. 골프를 좋아하는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3월 청구회 일정 (395회)

일시: 2023년 3월 28일 (화) 12시 전후
(3.4.5.6.8.9.10.11월 네번째 화요일 8회 실시)

장소: 뉴스프링빌CC

팀수: 18팀 (72명)

참가신청: 각기수 청구회 간사 또는 청구회 김형찬 총무 (42회·010-4273-0119)에게 개별신청.

연회비: 10만원

스크린 골프대회 열린다

청구회 윈터시즌 스크린 골프대회가 열린다.

대회코스: 뉴스프링빌CC 알프스/몽블랑 코스

대회기간: 2023년 2월 26일~3월 19일(3주간)

경기방식: 18홀 스토포크 플레이

단, 모든 시상은 2라운드 이상 완료하여 통합 랭킹에 등재된 회원에 한하여 시상함.

스트록, 니어, 롱기 순위는 자동집계 됨

사용시스템 및 스크린골프장: 비전플러스, 투비전, 투비전 플러스, 전국 골프존 스크린골프장

참가신청: 청구회 밴드

(<https://band.us/band/60702631>)

드론 영상 편집 배우실 분 연락주세요

세상을 마음껏 비행하고, 하늘을 유영하는 느낌이 전해지는 드론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드론은 촬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이나믹한 영상을 직접 편집해 보세요. 프리미어 프로, 포토샵이 어려우신가요? 자주 사용하는 스킬 배우기로 해결해 드립니다.

문의: 드론 영상 편집 지회 02-588-7871, 010-5892-7871



‘동창회비’ 기수별 10명 이상 늘면 50% 돌려준다

40대 기수 이후에는 커피쿠폰 증정

2023년 총동창회 회원 확충을 위해 동창회 사무처가 동창회비 이벤트를 진행한다. 기수별 회비 납부를 전년 대비 10명 이상 증가 납부 시, 회비 절반(50%)을 해당 기수회에 돌려드리는 이벤트이다. 예를 들어 전년 대비 10명이 늘어난

기수의 경우 동창회비 40만 원 중 50%인 20만 원을 기수 동창회에 돌려주는 것이다.

또한, 40대 기수 이후에게는 동창회비 이벤트 이외에 납부자 전원에게 소정의 상품권(커피 쿠폰)을 증정하는 추가 이벤트도 진행한다.



선농문화포럼

2023년 상반기 강좌 수강생 모집

제24기 선농 인문·교양 강좌

- 강사: 송혜경 / 한국의 정신과 문화 알리기회 상임이사
- 강의내용: 한국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한국인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다.

No	일정	과정명	비고
1	4/6(목)	하늘에 새긴 인문학	※대면 무료강의 (15:00~17:00)
2	4/13(목)	홍익인간에 담긴 인문학	
3	4/20(목)	활자에 새긴 인문학	
4	4/27(목)	예술에 새긴 인문학	



제4기 오페라 산책 수강생 모집

오페라 감상을 위한 음악 지식과 역사, 작곡가와 시대적 배경 등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 '제4기 오페라 산책'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강사: 양현주 / 서울기독대학교 겸임교수

No	일정	과정명	비고
1	4/5(수)	낭만주의 이탈리아의 오페라 베르디(Verdi)의 삶과 <라 트라비아타La traviata> <축배의 노래> <아 그이었던가>	오후 2시~4시 ※대면 무료강의
2	4/12(수)	<프로벤자 내 고향으로> <파리를 떠나서> <안녕, 지난날이여>	
3	4/19(수)	베르디, <리골레토>: <이 여자나, 저 여자나>	
4	4/26(수)	<그리운 그 이름> <여자의 마음>	
5	5/3(수)	비제(Bizet)의 삶과 오페라 <카르멘Carmen>: <아바네라> <투우사의 노래>	
6	5/10(수)	<꽃의 노래> <집사의 노래>	
7	5/17(수)	푸치니(Puccini)의 삶과 오페라 <라 보엠La bohème>: <그대의 찬송> <내 이름은 미미>	
8	5/24(수)	<내가 이 거리를 걸을 때면>	

제1기 시니어 스마트폰 교실

즐겁고 안전한 디지털 소통을 위한 '제1기 시니어 스마트폰 활용'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준비물: 개인 스마트폰
- 강사: 송귀옥 / 트로트보다 재미있는 스마트폰 교실 강사



No	일정	과정명	내용	비고
1	3/8(수)	왕초보 스마트폰 기초	1) 스마트폰 각 부분의 이름 2) 스마트폰 터치법 3) 필요 없는 앱 삭제하기	오전 11시~12시 ※대면 무료강의
2	3/15(수)	금융사기 예방교육	1) 1인당 사기 피해 평균 금액 & 하루 사기 피해 평균 금액 2) 사기 사례-명의 도용, 액정 깨짐, 택배 오배송, 상품권 구입 3) 사기 피해 후 절차	
3	3/22(수)	나만의 스마트폰 맞춤 설정	1) 스마트폰 각 부분 & 화면 구성 2) QR코드 스캔 3) 자동 꺼짐 화면 설정	
4	3/29(수)	카카오톡	1) 잊지 않고 예약 메시지 보내기 2) 사진 여러 장 묶어 보내기 / 묶음 저장(고화질 저화질 보내기) 3) QR코드 친구추가 / 연락처 보내기	
5	4/5(수)	나만의 기사님 호출하기	1) 카카오 택시 도착 설정 2) 카카오 택시 출발지 지도 설정 3) 직접 결제	
6	4/12(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이버 그린닷	1) 퀴즈 정답을 네이버 검색하기 2) 어! 이 노래 무슨 노래였지? 맞추기 3) 이 물건 어디서 샀어요? 얼마예요? 그린닷으로 해결	
7	4/19(수)	키오스크 앞에서 당황하지 않기	1) 박막레 할머니 키오스크 도전기 동영상 2) 우리가 롯데리아 키오스크 설계 부서라면?(메뉴 분류) 3) 키오스크 프린트로 연습	
8	4/26(수)	꽃이쁘게 촬영하기	1) 사진구도 2) 줌인 기능 3) 자동 편집 기능 4) 동영상 촬영하기	

■ 강의장소: 동창회관 3층 선농홀 (6호선 버티고개역 1번 出口) / ※ 교육과정 운영안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강신청: 사단법인 선농문화포럼 ■ Tel 02-2233-7871 ■ e-Mail sunforum@daum.net ■ 홈페이지 www.sunforum.org



사랑의 봉사단과 함께 이웃을 행복하게 하실래요

사랑의 봉사단은 2020년 이규용 총동창회장의 관심과 몇몇 동문들의 헌신으로 구성되었다. 봉사단의 목적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사랑의 빈곤을 느끼는 곳을 찾아가 용기와 희망을 전달한다. 봉사를 해야 하는 이유는 동문의 정체성을 찾고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품격 높은 동창회로 이어가기 때문이다.

봉사는 거울과 같다. 정그리면 세상도 당신을 보고 정그리고, 웃으면 세상도 당신을 보고 웃기 마련이다. 우리 봉사단의 설립 시기는 짧다. 매년 말 꾸준히 40대 기수가 주축이 되어 도봉구에 있는 사회 취약층에 연탄을 가정에 나누어 주는 감동 이야기를 접한 것이 계기다. 사회봉사는 동문들만 재미있고 즐거운 차원을 넘어 사회 전반에 천하부고의 명예와 희생정신을 나누는 역할도 한다.

현재까지 실적은 미약하지만, 2021년~2022년에 걸쳐 김치와 과자, 생활필수품 등을 전달하였다. 코로나19 장기



화 여파로 인해 단절된 평범한 삶과 소외된 곳에 희망의 봄기운을 나누었다고 자부한다.

대표적인 예로 도봉구 지역 취약계층에 김치를 전달하였고, 성금

과 생활필수품은 노인복지시설 '다물'과 아동시설 '뽕큐재단',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인천베데스다' 등에 전달했다. 졸업 40주년을 맞은 33회 동문회(회장 노용오)와 몇몇 후원자들의 정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봉사하면서 느낀 한결같은 마음은 감사와 은혜다. 봉사하면서 우리가 도움을 준다는 생각을 버리고, 도움 자체만으로도 행복을 느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을 했을 뿐이라는 생각뿐이다. 향후에도 사대부고총동창회 사랑의 봉사단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는 지치지 않고,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지속적으로 후원하리라 기대한다. 대상은 1차적으로 동문들이 운영하는 단체와 연관된 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힐링은 덤...배울 게 많았던 호주 연수



오페라 하우스 앞에서



NSW 아트 갤러리 앞에서



페더테일 동물원 앞에서

서울사대부고 모범교사 연수 후기

7일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시드니를 중심으로 경험하고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시드니가 가지고 있는 도시이면서도 조금만 벗어나면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바이브를 100퍼센트 느끼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블루마운틴의 산림, 브론테비치의 바다 페더테일 동물원의 다양한 호주의 동물들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영어과 교사로서는 현지인이 사용하는 언어를 직접 듣고 이해하면서, 한국인에게 익숙한 미국식 영어, 영국식 영어와는 다른 호주식 영어 특유의 톤과 어휘 사용에 대해서 직접 경험한 기회라 또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멋진 자연과 환상적인 날씨가 주는 행복감을 만끽하고 돌아온 연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준 서울사대부고 총동창회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챗GPT도 천하부고를 알아보네요

시를 써주고, 그림을 그리고 어떠한 질문을 던져도 답변을 내놓은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챗봇 '챗 GPT'(chatGPT)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의 인공지능 연구재단 Open AI에서 개발한 챗봇(Chatbot)은 chatter(수다를 떨다)와 robot(로봇)의 합성어로 로봇과 대

화할 수 있는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챗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전 훈련된 변환기를 의미한다. 사용자와 주고받는 대화에서 질문에 대답하도록 설계된 언어모델이다. 챗GPT에 서울 사대부고 평판에 대한 질문을 던져봤다.

#챗GPT님, 서울사대부고를 졸업하면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서울사대부고는 대한민국에서 명문 중의 명문 학교로, 그만큼 졸업 후에는 다양한 기회와 혜택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대부고 졸업 후의 장점입니다.

대학 진학 경쟁력: 서울사대부고 졸업생들은 학업 성취도와 인문사회성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대학 진학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교류 및 연결망: 서울사대부고는 학생들이 다양한 국내외 대회나 행사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그들의 인맥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취업 경쟁력: 서울사대부고는 학생들이 다양한 대외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수많은 대기업과 관련이 있는 취업 박람회를 개최하므로, 졸업 후에도 취업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글로벌 역량: 서울사대부고는 해외 연수, 교환 학생 프로그램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와 인사이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지위: 서울사대부고는 대한민국에서 명문 중의 명문 학교로, 졸업생이라는 지위 자체가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자존감과 사회적 신뢰감을 높여주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서울사대부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서울대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의 비전은 '창조적인 리더십과 미래 창조 인재 양성'입니다. 이 학교는 교육 혁신과 창의성, 선도적인 인성교육을 통해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 리더와 국가발전을 주도할 창조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분야, 문화예술분

야, 사회과학분야 등에서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 발전과 인류복지에 이바지하는 사람들을 배출하는 것이 이 학교의 비전입니다.





Total solution for ESS



ACE ENGINEERING

회장 유인선 (2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80
www.acecontainer.com



회원동정



▶8회 이우환

지난 1월 중순 일본의 항구도시 고베의 효고현립 미술관.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이 미술관에서 이우환(8회) 작가의 회고전이 열렸다. 이우환은 2021년 8월 서울옥션에서 작품 '동풍'이 31억원에 낙찰되며 한국의 생존 작가가 가운데 처음으로 작품 가격이 30억원을 넘긴 작가 됐다. 이번 전시는 앞서 도쿄 국립신미술관에서 가진 개인전의 순회전이라 작가 이우환이 한국을 넘어 일본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상징한다.



▶12회 변주선

1969년 대림동에 개원한 대림성모병원 김광태 회장과 변주선 행정원장 부부의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며 병원경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 온 이야기가 문화일보 3월22일자에 실렸다.



▶15회 강일구

학교법인 호서학원 이사회는 2023년 1월 6일 강일구 박사(15회)를 호서대학교 제12대 총장으로 선임했으며 임기는 4년이다.



▶18회 전광우

전광우 동문이 서울상대 총동창회가 매년 선정하는 자랑스러운 동문상(빛내자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1월 17일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정기총회 겸 신년 하례회에서 수상하였다.



▶22회 김태석

김태석 동문이 지난 1월 로마교황청에서 발행하는 바티칸 뉴스 한국어부 (<https://vaticannews.va/ko.html>) 편집위원으로 위촉됐다.

바티칸뉴스는 로마교황청에서 운영하는 공식 미디어 채널로 이탈리아어, 영어, 스페인어 등 전 세계 33개 국어로 서비스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에서 한국어부를 운영하고 있다. 김 편집위원은 연합뉴스 출신으로 한국 가톨릭신문 출판인협회와 가톨릭 언론인협의회 회장을 역임했다.



▶22회 최도성

2022년 2월 8일 제7대 한동대 총장으로 취임한 최도성 동문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995년부터 2013년까지 19년 동안 재임하신 제10회 고 김영길 총장의 유지를 이어 받은 최도성 총장은 지난 1년간 글로벌 인재 육성 등 대학교육 혁신을 통해, 대학 운영 전반에 걸친 평가에서 대학기관평가인증 'All Pass'를 획득하여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요건을 충실히 갖추고 있음을 국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최도성 동문은 서울대 경영학과와 대학원을 거쳐,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에서 경영학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뉴욕 주립대 교수,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가천대 부총장 등을 역임하였다. 한동대 총장 임기는 4년이다.

▶23회 이규용



법학을 전공한 한 기업가가 모교인 성균관대에 개인 재산 100억원을 쾌척했다. 이탈리아 패션브랜드 '만다리나덕'을 수입·판매하는 주식회사 나자인의 이규용(70)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이 대표는 재산 100억원을 한납하며 "세계적인 미래전략 싱크탱크 연구기관을 만들어 달라"는 뜻을 밝혔다. 미국의 하버드 케네디 스쿨이나 일본의 마쓰시다(松下) 정경숙이 그가 생각하는 롤모델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과학기술 분야에 관심을 갖고 기부하는 사람은 많지만, 기술이 제대로 발현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제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은 부족하다"며 "사회과학 전공자로서 정책이 시대 변화에 따라오지 못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집단 이기주의와 양극화, 사회적 방만이 계속되는 상황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그는 "명망 있는 교수가 아니라 '스피릿'이 있는 젊은 학자들을 모아서 우리나라 정책을 선도하는 기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7회 김기명

쌍용건설은 김기명 현 글로벌세아 대표이사를 쌍용건설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1월 2일 밝혔다. 김 대표는 월마트 한국 지사장, 인디에프 대표이사, 세아상역 미국 총괄 법인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글로벌

세아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앞으로 쌍용건설 대표이사를 겸직한다. 글로벌세아는 김 대표에 대해 "회계·재무·인사관리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경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쌍용건설 경영 안정화와 재무 환경을 개선하고 재도약을 위한 계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석준 회장은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지만 회장직은 유지한다. 글로벌세아 측은 "김 회장에게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며 "쌍용건설 경영 안정화와 사업확장을 통한 성장과 발전에 있어 그동안 보여주시는 리더십을 갖고 회사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범(19회) 동문 부영그룹 회장 취임

부영그룹 신임 회장에 이희범(사진)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취임했다. 24일 부영그룹은 4년 8개월 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신명호 회장을 대신해 지난 20일 이희범 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안동 출생으로 서울대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제12회 행정고시 수석으로 합격해 공직에 몸을 담았다. 이후 산업자원부 장관, 한국무역협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STX 중공업 회장, LG상사 부회장,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은 풍부한 경험과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도를 갖추고 있는 인사로 그룹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맡아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최된 동계올림픽의 흥행 성공을 이끌어 낸 주역으로도 잘 알



려져 있다. 이 회장은 취임식에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며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 역할을 준 해 온 부영그룹의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대내외적 경제 불안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마음을 모은다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6회 홍지숙

NFT 아트 플랫폼 아트토큰(ART TOKEN. 대표 홍지숙)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2023 CES에 아트토큰이 개발한 NFT 그림 거래앱인 아트 NFT플랫폼 2R2가 삼성 스마트TV에 시연되었다. 삼성TV에 아트토큰의 앱이 탑재되면서 국내 작가들도 NFT작품을 삼성전자 TV를 통해 전 세계에 판매할 수 있어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된다. 이를 통해 거대한 안방갤러리 겸 디지털액자이자 예술품 거래 도구가 되는 것이다. NFT아트로 전세계 K아트 붐을 일으키고 있다.



▶45회 전수용

전수용 동문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사 파이낸셜리뷰가 2월 10일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엄중한 심사를 거쳐 네이버·카카오 뉴스검색 제휴 평가에 통과됐다.

이번 뉴스검색 제휴는 총 297개(네이버 261개, 카카오 180개, 중북 144개) 매체가 신청했으며, 평가를 진행한 결과 24개(네이버 24개, 카카오 16개, 중북 16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매체 수를 기준으로 통과 비율은 8.08%다.

파이낸셜리뷰의 이번 결과는 31회 정하영 동문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됐다. 정하영 동문은 지난해 뉴스검색제휴에 통과된 인터넷신문사 페로타임즈를 운영하고 있다.

럭비부 유니폼 지원키로



서울사대부고 총동창회는 모교의 자랑인 럭비부의 사기 진작을 위해 올해부터 유니폼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모교 럭비부는 지난해 전국대회에서 2차례 우승하였으며 다수의 국가대표를 배출하는 등 수년째 전국 강호로서의 위용을 떨치고 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승진(09회) 2022.01.10
김인옥(09회) 2023.01.29
진윤태(14회) 2023.02.05
황인택(14회) 2022.12.28
이용웅(15회) 2023.01.03
김재홍(18회) 2023.01.13
최병기(30회) 2023.02.27



동창회보에서는
동문 여러분들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전화 02)588-7871 팩스 02)588-7872

이메일 snubugo@chol.com



● 미주알 고주알



아들이 한의원 개원 사대부고 찬스 당연하죠

▶30회 신명석

저의 아들(신승재)이 강남구 대치동 한티역 1번출구 옆에 '한티세종한의원'을 개원하였습니다. 관절과 탈모, 당뇨병등을 한 방으로 치료합니다. 사대부고 출신이라고 말씀하시면 더 저렴하게, 더 친절하게 모십니다.



진료과목은 사상체질과, 침구과,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재활

의학과입니다. 02-6228-0105. 010-8505-4457.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320, 성진빌딩 201호(대치동)



육창용 전용밴드 출시 동문엔 할인 판매

▶39회 이상민

(주)네오메디제약 (대표 이상민)은 프리미엄 상처 밴드 네오소프트폼을 출시하였다. 이 제품은 상처를 흉터가 생긴 이후에 치유되는 일반 건식 밴드와 달리 진물등을 흡수하고 상처를 보호 치유하는 작용으로 흉터가 최소화 되며 쿠션 작용이 있어 상처 부위의 통증이 완화된다는. 세계적으로 검증된 영국산 프리미엄원단을 사용하였다.



이 제품은 2mm/5mm 2종으로 출시되며 육창에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그리고 상처 크기에 맞게 잘라 쓸 수 있으며 10cm x 12cm의 사이즈로 출시됩니다. 2mm 두께는 10,000원, 5mm 두께는 12,000원으로 출시되며 동문께서 구매하실 경우는 할인하여 2mm 7,000원, 5mm 8,000원에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패션일 하다 전기제품 팔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48회 김성진

안녕하십니까? 동문 선후배님들. 48회 김성진입니다. 이랜드 인도지사에 근무 후 귀국하여 가업을 물려 받았습니다. 막상 시작해보니, 나름 오래 경력을 쌓아왔던 패션분야와 전혀 다른 일인지라 선후배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DC POWER SUPPLY와 ELECTRONIC LOAD를 수입, 판매하고 있습니다.

1. DC POWER SUPPLY - 생산국 ISRAEL - 제조자 TDK LAMBDA
2. ELECTRONIC LOAD - 생산국 GERMANY - 제조자 HH (Höcherl & Hackl)

연락주시면 한끼 식사를 모시고, 주시는 조언 경청하겠습니다.

회사명 : 김즈엔지니어링 연락처 : 010-3926-2545

이메일 : nccsof@naver.com homepage : kimseng.net

※ POWER SUPPLY : 전원을 필요로 하는 전기제품에 전압과 전류를 공급해주는 장치

ELECTRONIC LOAD : 전력을 소비하는 장치로써 직류전원의 시험평가, Battery의 방전시험등에 사용되는 장치



갤러리 공간 '미끌'로 이영실 전시회 보러 오세요

▶35회 조주영

갤러리 공간 미끌 조주영 관장입니다. 종로2가에 있는 저희 갤러리에서 3월 14-26일까지 이영실 작가 초대전을 엽니다. 도

자기 예술가인 이영실 작가는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조형적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부조형태의 도자기에 꽃, 나무, 새, 물고기 등을 우화적 느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자연과 일상에서 찾은 감흥을 아름다운 기억으로 형상화하는 작품들이 전시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몸에 좋은 삼계탕이 동문을 기다립니다

▶ 35회 김은효

대한민국에서 가장 맛있는 삼계탕집, 논현삼계탕. 병동닭이 아닌 프리미엄 국내 산 생닭과 최고급 국산 재료만을 고집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소: 성북구 종암로167 동일하이빌뉴시티 127호

문의: 02-6053-0707



늘 맛있는 김밥 드시러 오세요

▶ 45회 임성수

'늘' 항상 똑같은 의미로 상호를 정했고, 부제가 '소담바른먹거리'로 소담스럽고 바르게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하고 조리과정도 바르게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분식이지만 손이 많이 가는 김밥. 집에서 자주해먹기 어렵고, 잘 안 해먹게 되고 밖에서 사 먹으려면 간단한 음식인데 맛있고 배부르게 먹을 수 없으니 배부르게 먹자고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밥 이외도 덮밥류, 돈까스 등도 맛있으니 한번 오셔서 드셔보세요.

주소: 서울 성북구 종암동 3-289 1층 문의: 02-6014-0007



주최: 서울사대부고 32회 산악회 일동

故 정창호 10주기 추모 사진전

우리,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

2023. 04. 02. (SUN) 12:00 ~ 17:00

gallery  공간미플

정창호 친구 사진이나 영상물 보내주세요.

휴대폰 010-7752-0380

이메일 arirang611@naver.com

우편물이나 택배주소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34길 24 돈암삼성아파트

107동 1308호 영상사진전 준비위원장 김광복

후원금 접수계좌 신한은행 110-189-503590 (636-11-002248) 김영준 (010-5241-2736)





▶ 11회 신정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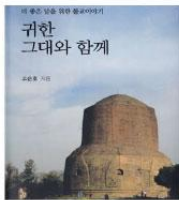
80 늙은이의 어린 생각 | 대일텍코

신정재 에스에프 회장이 80년 인생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 '80 늙은이의 어린 생각'〈사진〉을 내놔다.

신 회장은 1940년 경기도 가평에서 태어났고 서울 사대부고, 서울대 농과대학, 서울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이후 직장생활을 거쳐 에스에프(예전 사명 과학사료)를 창업했다. 신 회장은 '산티아고 길에서 나를 만나다' 등 '신정재 이야기' 에세이를 냈다. 이번이 여섯번째 '신정재 이야기'다. '80 늙은이의 어린 생각'은 1장 '80 노인의 뉘두리', 2장 '늙은이의 작은 생각', 3장 '무근한 친

구들에 대한 생각', 4장 '가족들의 따뜻한 정', 5장 '내가 만난 잊을 수 없는 사람들', 6장 '즐거움 여행중의 느낌들' 등 총 6장으로 구성돼 있다. 각 장 주제마다 사연은 10여 개. 합치면 총 80여 개에 달한다. 신 회장이 책 머릿말에서 "시간이 있을 때 혼자 글적거린 것을 모았다"고 밝혔듯이 이 책은 개인 경험이 주요 소재다.

하지만 다 읽고 나면, 결코 개인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독자들은 어느새 그의 삶에 파묻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렇게 살까"를 고민하게 된다.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갈 길을 짚어보는 지침서가 될만하다.



▶ 18회 고순호

더 좋은 날을 위한 불교 이야기

귀한 그대와 함께 | 무량수 출판

현 부산 불교연구원 원장인 고순호 동문(18회)은 『더 좋은 날을 위한 불교 이야기 귀한 그대와 함께』(무량수

출판)를 출간했다. 『불교학 개관』, 『불교 기본의례』 등 다수 불교 서적을 출간했던 동문이 일반인들의 불교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공군 군종장교(법사) 임관 50주년 기념으로 이 책을 썼다.



▶ 18회 박현채

부동산 모르면 망한다 | 제이 디자인 출판

연합뉴스 경제부장과 논설위원 출신인 박현채 동문(18회)은 『부동산 모르면 망한다』(제이 디자인 출판)

를 출간했다. 다년간 경제현장 취재 경험을 토대로 부동산 투자 시 잘 보이지 않는 함정, 폭락세를 이어가는 부동산 시세 향방과 GTX의 함정 등 모르면 낭패를 보게 되는 사례가 소개되었다.



▶ 20회 백종선

고양이에게 말 걸기 | 청어

상상은 마음의 공간이다. 상상은 마음의 놀이다. 어린 시절부터 즐기던 마음의 놀이를 황혼이 지는 나이에도 여전히 즐기고 있다. 대책 없는 나의 호기심이 잠들지 않는 밤이면 노트북을 켜고 마음의 구슬 하나, 저장한다. 기분이 편안하고 좋아진다. 그렇게 모은 구슬이 어느덧 넘쳐 구슬 상자 밖으로 빠져나오려 하자 약간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구슬이 서 말이면 뭐 하나? 꿰어야 보배지. 나를 자극하는 목소리들이 아우성친다. 이제 한눈 그만 팔고 구슬들을 꿰어야겠다.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아름다운 목걸이를 만들 작정으로 다시 샘솟는 창작의 샘에 두레박을 내리던 날, 가슴이 몹시 두근거렸다. 어떤 향을 가진 어떤 모양의 어떤 색깔의 꽃이 필 것인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었지만, 기대만큼 써지지 않고 눈높이를 뛰어넘는 일도 만만치 않았다. 그래! 창작이란 물론 어려운 일이지. 어려우니 도전하고 싶은 욕구도 생겨나는 거 아닐까. 미흡한 작품이지만 깊은 정성과 사랑으로 작품에 대한 뒤표지 글을 기꺼이 써주신 존경하는 박정규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생애에 대한 깊은 통찰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뒤표지 글을 써주신 김진초 소설가님께도 감사드리다.



▶ 33회 김광훈 (김광훈 출저, 영한번역)

할아버지의 분홍바지 | 춘희네책방

여기 사사사철 분홍색 바지만 입는 할아버지가 있다. 사람들에게 따르면, 패션만 이상한 게 아니라 성격도 이상한 괴짜 영감이라고 한다. 할아버지는 기념일에 할머니에게 장미꽃 한 송이 사준 적 없다. 재활용 쓰레기를 담았던 봉투를 다시 가져와 또 쓴다. 내다 버린 할머니

니의 분홍색 바지도 다시 가져와서 입는다. 과연 괴짜라고 할 수 있을까? 남들이 뭐라고 하든 환경을 생각하고, 진정한 맛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백 마디 거창한 말보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행동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림책이다.





Based on the trust of 50 years,
MASUNG will prepare for the next 50 years.

MASUNG 50년,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50년을 준비합니다

MASUNG은 50년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세계를 향해
Global Business Partner로서
새로운 50년을 준비합니다.



- *Drug delivery system
- SMEDDS (Self microemulsifying drug delivery system)
- Controlled release system (Hydrogel & Lipid matrix)
- Bioavailability enhancer
- Penetration enhancer
- Hot melt granulation & coat
- Hot melt extruder
- Versatile excipients





엘타워, 최고의 연회를 빛내다

39,202 회

연회행사 개최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함께한
39,202번의 연회, 60만 명의 누적고객
품격의 신뢰까지 높인 엘타워,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프리미엄 연회를 선보입니다.



닛산 /



마이크로소프트 /



SFAA 서울 컬렉션 /



인텔 /

예약·문의 02-526-8600~4

- 10개의 대·중·소 연회홀을 갖추고 있어 패션쇼, 자동차 런칭쇼, 스페셜파티, 세미나, 국제회의 등 다양한 연회가 가능합니다.
- 특별하고 기품 있는 행사를 완성하는 EL Tower 연회 프리미엄을 느껴보십시오.

total banquet hall
TOWER 엘타워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 9번출구 바로앞 위치



김명국(6회) 서울대 치의대 명예교수 소장품전

사진으로 본 사대부고 부산피난시절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이 개학 100주년을 맞아 '김명국(6회·서울치대 제12회, 1958년 졸업) 명예교수 소장품전'을 지난해 10월 14일부터 올 1월 말까지 열었다.

이번 소장품전에는 서울대학교 총장상, 자랑스러운 서울대학교 치과인 동문상, 한국과학기술 한림원상, 대한치과의사협회 협회대상 학술상, 대한해부학회 학술상 으뜸상, 학위기, 해외연수, 훈장, 1950, 60년대에 프린트 교과서 및 학회지를 만들



때 사용했던 등사기 등 63점과 고등학교 시절 사진 20점을 내놓았는데 서울 사대부고 부산 피난시절 사진이 눈길을 끌었다.

김명국 동문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학장, 한국 치과대학장협의회 초대회장, 국제치과연구학회 한국지부회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담당 부회장,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이사, 대한해부학회 회장, 한국전자현미경학회 회장, 대한체질 인류학회 회장, 대한구강해부학회 회장을 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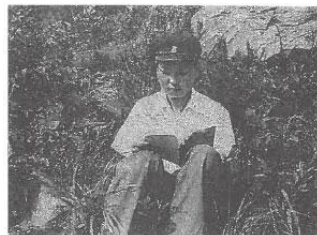


부산피난 시절 보수공원 산 꼭대기 판자집 교사, 1951~1953년

부산 피난시절 보수공원 산꼭대기에 판자집 교사를 세웠으면 이때 언덕을 평편하게 하여 집터를 만들기 위해 학생들이 돌을 날라 축대를 만들었다.



부산 피난
사대부고 시절,
1951~1954.



뒷줄 왼쪽에서 첫번 째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학생시절 소공동 교사, 1954~1958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앞 오른쪽에서 세번 째





신임 총동창회장 **이진형** (26회)

“뻔한 동창회 아닌 편한 동창회 만들터” 〈FUN〉

“그 동안에 모교와 동창회에 빚진 것을 되돌려 줄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총동창회장을 맡게 된 소감에 대해 ‘빚진 것을 갚을 기회가 왔다’라는 말로 인터뷰를 시작한 이진형 신임 총동창회장. 지난해 12월 말, 회장으로 선임되면서 동창회 활동을 했던 역대 선·후배들과의 만남을 통해 앞으로 총동창회를 이끌어갈 좋은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한다.

동창회관의 첫 발이 활기차고 기분 좋게

“동창회관을 찾는 동문들에게는 익숙할지 모르지만, 오래간만에 찾는 동문들은 이구동성으로 ‘어둡다’라고 말합니다.”

동창회관의 문을 열고 1층 현관을 들어서면, 어둡고 침침할 뿐만 아니라, 층별 안내 표시판도 없다. 그러다보니 2층 동창회 사무실로 올라가는 계단도 유난히 많아 보인

다. 이진형 회장은 동문들이 동창회관의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부터 밝고,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조명을 밝히고, 층별 안내 표시판도 달고, 서울사대부고 종암동 교사의 사진도 크게 비치할 계획이다. 총동창회 슬로건도 정했다. ‘즐겁고, 유익하고, 보람된 동창회’라고. 이 회장은 올해 모교를 졸업한 제75회 졸업생과 만나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총동창회에 젊은 기수들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 내야겠다고 생각했다. 물론 젊은 기수의 참여는 역대 회장들마다 고민해 왔던 숙원 사업이기도 하다.

“40대 기수 이후의 후배들이 주도하는 모임이나 지회를 개발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에 가지가 뻗어나고, 열매가 풍성하게 결실을 맺는 것처럼, 가지와 열매의 역할을 할 40대 이후 후배 기수들의 동창회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다는 이진형 회장.



동기회 결성에 재정적인 지원은 물론 납부한 동창회 연회비의 50%를 동기회로 지원하고, 40기 이후에게는 일반 회원이 늘어난 만큼 상품권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영상, 디자인, 드론 교육 등 젊은 후배들의 관심사를 지회 결성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선·후배들간의 만남 필요, 분기별 지회의 장 마련

총동창회는 동기회는 물론 산악회, 선경회, 청구회를 비롯해서 체육 및 취미 관련 지회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동문 지회와 해외 미주 연합회 등의 지회가 있다. 지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카카오톡, 홈페이지, 동창회보 등을 통한 소통과 함께 선·후배간의 모임인 수직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현재 동기회 모임은 활발하게 움직이지만, 선·후배간의 모임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선·후배들이 모임 수 있는 지회의 장을 만들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사대부고 카카오톡 알림톡에는 500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회장 임기 동안에 1800여 명까지 늘려 나갈 계획이다. 알림톡은 생활 정보, 여행 정보, 지회 소식을 비롯해서 동문들의 사업 홍보

도 함께 게재할 예정이다. 또한, 이러한 정보들을 총동창회 홈페이지에서도 공유하여 회원들과 함께 움직이는 홈페이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홈페이지의 디자인 변화, 콘텐츠 보강 및 운영 방안 개선을 이끌어가기 위해 동문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도 모집 중에 있다.

연말 정기총회에서 시상하고 있는 ‘자랑스런 부고인상’에도 변화가 있다. 그동안은 10~20대 기수들에게 주어진 ‘자랑스런 부고인상’을 금년부터는 심사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30대 이후 기수에서도 시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재학생 5명 선발, 미주 연수 프로그램 재개

이진형 회장은 모교 발전을 위한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재학생 미주 연수 프로그램도 다시 재개된다. 남가주선농장학재단과 미주연합회가 주관했던 미주 연수 프로그램은 다시 시행할 예정이며, 모교 재학생 5명과 인솔 교사가 함께 미국 유명 대

학을 비롯해 기업체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서울대학교 내에서 존재감이 다문화에 있는 모교의 위상을 올리기 위해 지난 2월 7일 부설학교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을 위해 강준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학장, 이화성 서울사대부고 교장을 비롯해 변주선(12회), 구재욱(19회), 이희범(19회), 노용오(33회), 이승경(38회) 동문들과 함께 모교발전 간담회도 개최했다. 이 간담회를 통해 나온 내용들은 ‘모교 발전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통해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학생을 위한 멘토, 멘티 프로그램도 계획 중에 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 중인 동문들과 재학생들과의 연계를 통해 재학생·학부모·졸업생들의 고민 등을 함께 토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재학생 특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교

직원 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을 위한 협조와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삼남매가 부고 동문, ‘작은 부고 동창회’ 실천

형인 이찬형(20회) 동문, 누나인 이홍자(22회) 동문과 함께 서울 사대부중·부고를 졸업한 이진형 회장은 집에서도 ‘작은 부고 동

창회’를 실천하고 있다고 말한다.

“삼남매의 배우자 모두 부고 명예 동창인으로 위촉해서 삼남매 부부가 자주 만나고 있어요. 최근에 누님인 이홍자 동문이 제주도로 전원생활을 하고 있어 모임 횟수가 줄긴 했지만요.”

중학생 시절에는 부고 향토연구반 반장을 했던 이찬형 동문을 따라 향토연구반 활동을 따라다니며 좋은 구경도 하고, 훌륭한 선배들도 알게 되었다는 이진형 회장. 부고에 들어와서는 새로 이전한 중앙동 교사의 테니스장을 유삼태 선생님, 테니스반원들과 함께 3개월에 걸쳐 직접 만들었던 일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회상한다.

‘1인 1지회 가입, 동창회 사랑은 연회비부터, 내 준 만큼 돌려주는 동창회, FUN한 동창회를 만들겠다’는 이진형 회장은 올해에도 동문들과 동문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쳤다.

글·사진 조용식(35회)





● 화제의 동문

이해자 (21회)

74세 톱 시니어 모델 '리송'이 저예요

리송은 74세 시니어모델이다. 우리나라에서 시니어모델은 점차 각광받는 직업 중 하나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모델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기 때문이다. 리송은 사대부고 21기이다. 남편과는 사대부고 동기생이다. 고등학교 때부터 사랑을 키워 연애 8년 후 결혼을 했다. 이후 전업주부로 생활하다가 일흔 살이 되던 해 시니어모델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전업주부 '이해자'에서 모델 '리송'으로 변신하면서 MZ세대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그것은 2019년 '제1회 KMA 시니어 모델 선발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우정상을 받으면서 프로 모델로 데뷔했기 때문이다.

이후 캐주얼웨어 무신사 스탠다드, 애슬레저 룩 올리즈 등 젊은 패션 브랜드 모델을 했으며, 앙드레김 쇼, 사랑가득나눔 시니어모델 자선패션쇼, 엑스вай 패션쇼, 캐나다 밴쿠버 패션위크 패션쇼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면서 MZ세대에 각광 받은 시니어 모델로 등극했다.

시니어 스타 오디션 프로그램 MBN '오래 살고 볼 일-어쩌다 모델'에 출연해, 시청자들에게 얼굴을 알리기도 했다.

자신의 성과 남편의 성을 따

'리송'은 자신의 성과 남편의 성을 따서 만든 이름이다. 남편이 어느 날 신문에 난 시니어모델 기사를 보여줬고, 시니어모델에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그러면서 2019년 5월 제이팩터스라는 시니어모델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찾아 1시간 참관한 후 바로 등록했다. 이렇게 터닝포인트가 시작됐다. 그만큼 남편이 자신의 모델 활동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한다.

리송은 자신의 모델 이름 리송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이해자'는 부모의 소망을 담은 글자의 조합이었다면 '리송'은 오늘과 다가올 미래의 설렘을 합친 이름이기 때문이다.

리송으로 거듭나면서 리송은 재밌고, 신기한 경험을 했다. '리송'은 원래 자신과 다른 인물은 아니라고 했다. 나 자신이 만들어 다스리고 어루만져 보이지 않았던 잠재된 형체, 그것을 '리송'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고 한다.

새로운 '리송'은 '높게 뛰어올라, 너는 능력을 갖고 있어, 너의 뒤에 내가 있어. 한번 도전해봐. 도전하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어'라면서 매일 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편은 부고 동기...고교 때부터 8년 연애

자신이 시니어모델이 될 수 있었고, 현재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남편과의 사랑이야기는 사대부고 1학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남편은 청주에서 서울로 유학을 왔고, 고등학교 화학동아리에서 만났다고 한다. 지금은 흔한 '남녀공학'이지만 1960년대 당시에는 남녀공학이 흔하지 않았다.

오늘날처럼 남녀 학생이 과감하게 애정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상이 아니었다고 한다.

이에 점잖아서 누구를 쫓아다니지 않는 사람인데 늘 자신의 2~3미터 뒤에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집에 갈 때는 남편이 자신이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것을 본 후 다른 방향의 자기 집으로 가곤 했다고 한다. 이것을 훗날에 알았다고...

리송은 남편에 대해서 '아버지 같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동갑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같았고, 그 이유는 유일하게 화를 낼 수 있는 사람, 자신의 감정을 원색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이 화를 내면 자신의 머리를 쓰담으며 '그러면 병나지'라고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리송은 "처음으로 사랑한 사람, 지금도 바보처럼 사랑해주는 사람, 어떤 남자도 나를 보면 반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결혼하니 연애 시절보다 더 좋은 남자"라

고 남편을 소개했다.

약학 전공...1년 반 약국 운영하기도

대학 때 약학을 전공해 1년 반 약국을 운영한 적도 있지만 평범한 전업주부로서의 시간이 더 많았다.

이런 이유로 세 자녀에 이어 여덟 명의 손자와 손녀들까지 자신의 품을 떠난 순간 빈둥지 증후군을 겪어야 했고, 이에 새로운 '리송'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됐다. 그 새로운 결심에는 남편의 응원과 지원이 있었다.

그리고 시니어모델로서 단연 톱을 달리고 있다. 지난





2021년 12월 6일 '제4회 MK스포츠배 연예인 야구대회'에서는 리송이 시타를 하는 등 그야말로 분주한 활동을 하고 있다.

리송은 시니어모델을 하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고 한다. 리송은 “나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누군가에게 뭘 보여주고 싶어 도전하지 않는다. 내가 즐거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도전이 무섭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그녀는 “나는 일단 결정을 내리면 앞만 보고 가는 스타일이다. 항상 마른 땅만 있는 건 아니다. 진창도, 걸림돌도 있다. 그걸 넘어서면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하면 많은 게 언어진다”면서 시니어모델로서 당당히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주름이 예쁜 할머니'로 늙고 싶어

모델 리송으로서의 소망은 사람들에게 '그래, 저 얼굴이 나이 든 사람의 얼굴이다'라고 기억되는 것이라고 했다. 리송은 “내가 주름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라면서 주름이 그 자체로 아름다운 건 주름의 방향에서 나온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렇게 '주름이 예쁜 할머니'로 늙고 싶다고 밝혔다.

74세이니 74세의 걸음걸이로, 84세가 되면 그때는 84세의 걸음걸이로 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내 모습대로 사는 삶을 누군가가 좋게 느낀다면 그것

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리송은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남기기도 했다. “비석 세우지 말고 봉분도 만들지 말고 낙엽이 덮이면 안 보이게... 낙엽이 덮이면 아무도 흔적이 없어야 해. 그냥 바닥에 까만 돌을 깔고 '죽도록 열심히 사랑하고 갔다'라고 적어달라고 부탁했다.

리송은 “그거면 충분하다. 나중에 아이들이 내 무덤 앞에 있는 평평한 바위에 앉아 커피 한잔 마시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고 살랑살랑 부는 바람을 맞으며 쉴 수 있으면 됐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젊은 후배들에게도 남긴 말이 있

다. 리송은 젊은 사람은 좀 더 여유롭게 더 방황해도 좋다. 버리는 작업은 노력해야 한다. 주위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생각해야 한다. 내 친구들, 내 가족들, 나와 대화한 사람들, 내 인생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고마움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_전수용(45회)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 다문화가정의 **교육 위기 해소**로부터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현재 심각한 교육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엄마가 우리 말에 서툴러 ①자녀는 유년기에 제대로 언어를 습득하지 못하고
한국의 교육과정을 배운 적이 없기에 ②자녀의 학교생활을 이해하지 못하며
가족 생계까지 책임지는 처지에 놓여 있어 ③자녀 교육을 제대로 챙기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공교육에서 낙오되기 쉬운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게 되면 미래 대한민국 사회의 큰 자산을 잃게 됩니다.



한마음교육봉사단은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습을 직접 지도하고,
교사와 소통할 수 있으며,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육을 챙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엄마를 양성하는 “다문화엄마학교”를 전
국 24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고, 중·고등학생들에게 자기주
도적 학습능력과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한마음글로벌스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다문화가정 교육위기 극복에 동참해주시길 간청합니다.

월1만원 그린후원회원 약정 방법



- ① 휴대전화 카메라 화면으로 QR 코드 스캔
- ② 후원 사이트 접속
- ③ 약정 정보 입력
- ④ 출금동의 ARS 전화 수신 후 동의 버튼



최병규 단장
前 KAIST 교학부총장
명예교수

(주)위비주얼 WE VISUAL since 2003

LED 전광판 제조, 판매, 설치, 임대

행사용
회의실
공연장
스튜디오
영업장
모델하우스
교회

25회 이형권 010-5040-4795
samhkleee@hanmail.net

나라사랑모임과 함께합니다



청구회 신임 회장 **오호진** (30회 · 반석안전주식회사 대표)

“선후배 소통에도 나이스 샷 기대하세요”

“매번 다른 환경에서 라운딩을 하는 것이 골프의 매력이지요. 필드에 공이 떨어지는 위치가 매번 다르고, 주위 환경으로 인해 심리 상태에 큰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굉장한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매력을 가지고 있죠.”

2004년 청구회 가입...선배들의 열정에 감탄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만큼 성취욕도 커지는 것이 골프의 매력’이라는 오호진 청구회 신임 회장(반석안전주식회사 대표, 30회). 그가 청구회 활동을 처음 시작한 때는 2004년이다. 그해 개최된 제1회 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에 참석한 그는 당시 골프에 진심이었던 선배들의 열정에 감탄했다고 한다.

아마추어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흡인원상으로 자동차한 대를 경품으로 내 걸 정도로 스케일이 컸으며, 40개 팀(160명)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동문들과 함께 라운딩을 하는 내내 가슴 뿌듯하고, 커다란 자부심을 느끼게 됐다는 것이다. 그 대회를 계기로 30회 동기들은 물론 주변의 선·후배들에게 청구회를 알리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올해로 설립 52주년을 맞이하는 청구회는 골프라는 스포츠가 생소했던 시절인 1971년 5월에 첫 모임을 가졌다. 초창기 남자 중심의 골프 모임이었던 청구회는 52년의 역사가 흐르면서 남녀 공학의 명성에 걸맞게 여성 동문들의 참여가 활발한 지회이다. 현재 220명의 회원 중에 40%가 여성 동문이며, 월례회(3월, 4월, 5월, 6월, 8월, 9월, 10월, 11월)가 진행될 때면 매회마다 18팀 이상이 참여할 정도로 회원 모두가 뜨거운 열정을 보이고 있다. 또한, 5월(청구회장배)과 10월(총동창회장배)에 열리는 골프대회에서는 여전히 40팀 이상이 참가할 정도로 열기가 뜨겁다.

골프 애정, 20회에서 56회까지 이어져

“코로나19가 있기 전까지는 18팀을 채우기가 사실 뻥뻥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골프가 인기를 끌었잖아요. 청구회도 이 시기에 젊은 기수 동문들의 가입이 급격하게 늘어났답니다. 아마도 지금은 어느 지회보다도 젊은 기수 동문이 있는 곳이 청구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0회부터 56회 동문까지 이어지는 청구회. 이 모임을 이끌어가는 핵심 멤버는 40대 기수 동문들이다. 젊은 동문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컷오프를 당하는 회원들이 생길 정도로 인기 만점인 청구회. 하지만, 오호진 신임 회장은 여전히 사대부고 동문들 사이에서 청구회를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한다.

지난해 12월에 발행된 동창회보를 보면서 청구회 소식이 실리지 않을 것을 보고 오호진 회장은 깜짝 놀랐다고 한다. 사대부고 지회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청구회





2021년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약 30팀의 남녀 동문들이 뉴스프링빌 C.C에서 라운딩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가 홍보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를 느꼈기 때문이다. 총동창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2015년 이후 소식을 알리는 일이 멈춰서 있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됐다. 그래서 그는 청구회 조직을 개편했다. 전체 진행 업무를 맡는 총무팀, 경기 진행을 관리하는 진행팀, 그리고 청구회 홍보를 담당하는 홍보팀으로...

“2014년부터 청구회는 밴드 활동을 해 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총동창회를 통해 청구회를 알리는 일에 소홀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청구회 모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팀을 꾸리게 되었답니다.”

청구회 역사 알리려 52년 자료 모으고 있어

홍보팀은 청구회 활동뿐만 아니라 52년 역사를 가진 청구회의 옛날 자료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료를 하나하나 수집하는 업무도 맡고 있다. 골프가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없었던 시절, 청구회의 서막을 열었던 시대부터, 청구회의 왕성한 활동의 기틀을 만들었던 시기, 그리고 선·후배들과 함께 소통의 장으로 만들기까지의 기록을 정리하고 있다. 시대별로 청구회를 이끌어간 선·후배들의 명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회 초기 회원으로는 육동창(전 서전 회장, 2회), 김태경(전 경기지사, 4회), 권세현(전 그린스타스 대표, 4회), 김흥민(전 삼성라이온스 사장, 11회), 이건희(전 삼성그룹

회장, 13회) 등이 함께 했다.

80년대 들어서는 신현태(전 삼일기공 회장, 5회), 이홍배(한국검정 회장, 9회), 황인수(성일건설 회장, 10회), 신정재(네스에프 회장, 11회) 정승소(뉴스프링빌 C.C 회장, 15회) 등이 활발하게 청구회를 이끌었으며, 2000년대부터는 이재현(삼원산업 회장, 12회), 조성철(해동 회장, 13회), 이남구(엘가 회장, 15회) 등이 청구회 발전에 기틀을 마련했다. 이후 정진구(전 CJ푸드 대표이사 회장, 16회), 이규용(나자인 회장, 23회) 등이 청구회를 단순한 운동

활동과 모임 자리가 아닌 소통의 장으로 만들어 동문들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제가 청구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가 4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 당시 프라이드가 있는 선배들을 보고 대단한 모임이라고 생각했지요. 저는 후배들에게도 이러한

것을 이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호진 회장은 청구회에서 활동하는 선·후배들이 이제는 각자의 직업과 사회 활동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결 고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도 밝혔다. 골프로 하나되는 청구회이지만, 동창회 또는 지회 활동을 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소통과 만남의 장이 있다면 더 재미있게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글·사진 조용식(35회)







눈 떠보니

졸업한 지

60년

50년

40년

30년







졸업 60주년 15회

팔순에 떠나는 졸업여행 설렌답니다

어느덧 친구의 연을 맺은 지 60년이 되었구나.

“어서 와요! OO씨!” 얼굴도 알아볼 수 없는 거리에서 손을 흔들며 다가온다.

모습과 자태만 보고도 누구인지 알아보고 반긴다.

입가엔 웃음과 함께 먼저 저 세상으로 간 친구들 얼굴까지 겹쳐져 파노라마로 펼쳐진다.

유난스러움 때문에 15회 동기들을 극성맞다고들 한다. 좋은 일로 굿은 일로 이래서 저래서 막걸리잔을 놓고 뭉친다.

그중에는 우리들을 끌고 앞장서 나가는 히어로(hero)같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침마다 카톡 방에 외국에 거주하는 친구들을 포함 100명 가까운 친구들이 근황, 좋은 글, 건강 상식, 유익한 정보 등 서로 다뤄가며 올려준다.

또한 한해에 두 번 봄과 가을엔 어디든 여행을 떠난다. 80이 되었건만 버스 두 대를 뺏박이 채워 좋은 곳을 찾아 즐긴다.

등산, 당구, 바둑, 골프, 산행 등 동아리모임도 여전히 진행중이다. 몇 년 전만 해도 북 치고 장고 치고 징 치며 총동행사에 참석하여 운동장을 누빈 때도 있었다. 우리에게 설레는 애인 같은 60주년 기념 일본 홋카이도 3박4일 여행계획이 짜여져 있다. 경비의 3분의 1은 동창회비에서 보조해 준단다. 기대가 크다.

미주 동창들도 멕시코 크루즈 여행을 떠난단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 세상의 많은 경험을 겪어본 사람들이라서 마음이 여러였지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건강하게 정을 나누며 살았으면 하는 희망이다.

“OO아! 친구들아!

나태주 시인의 시처럼 ‘괜찮아, 괜찮아, 다 괜찮아!’ 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건강하게 살아보세나!”

글_구화자(15회)

우리는 학창시절 3년 동안 4.19와 5.16 등 사건이 많아 수학여행도 못 가고 길렀던 머리로 수시로 깎이는 등 힘든 세월도 보냈지만, 고교 최강의 럭비와 밴드는 많은 힘이 되어주었다. 당시 국내 최고수준의 은사님들로부터 받은 교육은 우리를 우수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만들어 모두가 자랑스런 부고인이었다.

모두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다 은퇴하고 보니 유명을 달리한 동창들도 50명이 넘고, 얼마전 졸업50주년 행사를 마쳤는데 금년에 벌써 60주년이란다. 50주년에는 여러가지 기념행사를 가졌지만 이젠 번거롭고 귀찮은 행사는 접어두고 국내의 여행만이라도 잘 해보자고 의견이 모아졌다.

어떤 선배기수는 60주년에 독지가가 거금을 쾌척하여 부부동반 미국여행을 다녀왔다지만 부부동반이란 말은 금기시되어 있어 잊은 지 오래고, 또 남녀동기들이 어울려 시시덕거리며 돌아다니는 것이 훨씬 마음 편하고 즐거워 얘기를 꺼내는 사람조차 없다.

동창회 일을 오래 맡다 보니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여행기간 버스의 좌석이나 숙소배정까지도 배려해야 하고 사소한 불평 불만도 만만치 않아 어려운 일도 많다. 그런 와중에도 어떤 동창들은 처음으로 함께할 기회가 됐다면서 반갑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내비쳐 힘을 실어주기도 한다.

나이가 든 남녀가 스스럼없이 어울려 다니면 주변에서 묘한 표정으로 바라보다가도 설명을 듣고 나면 몹시 부러워하기도 하여 우린 오히려 즐겁고 자랑스럽다.

나이 80에 해외여행을 가자니 먼저 비행시간, 건강, 안전, 긴급사태 등 고려할 것이 많아 아쉬운 대로 가깝고 안전한 일본 지역을 선택하였고, 미국에 거주하는 동창들은 부부동반으로 멕시코 크루즈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더니 많이 부럽다. 동기들끼리 80맞이 여행을 떠난다니까 마지막 단체 해외여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친한 친구들 끼리라도 오래 건강하게 여행도 다니면서 여생을 즐기기를 권해본다. 글_정동진(15회)



졸업50주년 25회

용두동, 을지로, 청량리 거쳐 종암동으로... '노마드 25기'의 전성기는 지금부터

21년 전 놀랍고 황홀했던 그 장면을 잊을 수 없다. 가끔씩 떠올려보면 미소가 절로 난다. 졸업 40주년을 맞은 14회 선배님들이 코스를 아름답게 갖추고 남녀커플로 '백조의 호수'를 선농축전 행사장에서 선보였던 장면이다. 그때부터 나는 늘 들어오던 천하부고 선배님들의 열정과 힘, 그리고 멋에 감동하면서 우리 25회 친구들도 학창시절 우정을 소환하여 차곡차곡 다지고 쌓아 훗날 50주년을 맞을 때 총동창회 선농축전에서 그만큼 멋있는, 어쩌면 더 멋있는 작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란 막연한 꿈을 꾸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세월은 채찍질하지 않아도 잘 달려 올해 졸업 50주년을 맞았다. 작년에 새로 동기회 회장, 부회장이 정해지고부터 바로 다음 해에 탁칠 50주년 행사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에 늘 마음이 바빠졌다. 남은 생에서 동창회 행사로는 가장 비중이 큰 기념이 될 것 같으니, 한편 머리와 손을 총동원하여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멋진 한해를 만들어보리라 생각하다가도 어떤 장애가 생기면 내가 뭘~, 무엇 때문에~,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하는 생각에 뒤로 물러섰다가는 중고등학교 시절 친구들의 추억들과 그 후 50년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경험을 가진 친구들이 차츰 모여 쏟아내는 우정 앞에서 시간이 아까우랴, 돈이 아까우랴? 이내 잘 해보리라 마음을 되돌린다.

잠시 눈을 감고 25회가 지나온 학창시절을 그려본다. 용두동 서울사대 캠퍼스 아래쪽 빨간 벽돌 건물에서 합격의 기쁨 안고 꿈을 찾아 거기에 갔다. 가끔 교내체육대회를 하면 누구는 학급을 위해 선수로 열심히 뛰고 누구는 커다란 양은주전자에 물을 길어와 선수 친구들의 목을 축여주었지. 슬쩍슬쩍 결근으로 남학생은 여학생을, 여학생은 남학생을 훑쳐보던 시간도 잠시, 3학년이 되면서 남녀유별이어서? 여학생 세 반은 을지로 6가에 있는 이름 하여 '부여중'으로 갔고 자동으로 우리는 '부여중 1회 졸업생'이 되고 말았다. 중3 때 학급 분위기는 살벌했다. 바로 위 선배들이 사대부고로 동계진학을 했는데 선생님들께서 무엇이 맘에 들지 않았는지 우리 때는 고등학교 선발 고사가 부활한다며 엄포 내지는 협박으로 과거 온갖 과외 동원으로 밤낮없이

달달 외우며 중학교 입시 공부하던 기질을 다시 끄집어내어 주셨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청량리에 있는 학교로 함께 입학했고 서울대학교 입시 준비 수학 모의고사에서 20점도 받아보는 쓴맛과 노력하여 헤어나는 단맛도 보고 무서운 이수복 선생님의 감시도 받아보는 등 길고도 험한 길을 걷던 중, 어느날 우리는 손에 손에 의자를 들고 개천 따라 삼만리 종암동 서울상대 캠퍼스 안에 있는 우중충한 건물로 이사를 갔다-요즘 같으면 학보모들이 난리였겠지만-. 이렇게 우리는 용두동, 을지로, 청량리, 종암동 학교 네 곳을 모두 다녀보는 특별한 혜택(?)을 함께 누려서 그런지 수학여행 때 아픈 친구를 소녀의 몸으로 선포 등에 업던 친구도 있었고-지금은 하늘나라에서 지켜보고 있지만-, TV를 거꾸로 보는 괴짜 교수가 총장도 되고, 신부님, 목사님도 여럿, 가수에서 사회복지사로, 학교 이사장이면서 사업도 트럼펫 연주도 봉사도 넘버원, 나라 사랑으로 밤낮없이 뛰며 부부가 힘을 모아서 지진 구호현장에 바라바리 꾸러 보내는 친구,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계란을 대량 생산하여 돈도 많이 벌고 봉사도 많이 하는 친구, 좋은 일 많이 하는 건축가, 유난히 예쁘고 요리도 잘하면서 본인은 아직 예쁘지 모르는 듯, 노래 잘하고 그림 잘 그리고 착한 것은 기본인 친구들... 나이 70이 되어 가슴 벅차고 멋진 추억 놀이 50주년 행사를 기다리고 있네.

그래서 우리는 50주년 행사로 탁구 대회도 했고, 5월 선농축전 행사장에서 춤바댄스로 선후배님들과 열기를 나눌 것이며 이를 뒤 16일부터 6일간 50주년 기념 미술, 사진 전시회를 갖는다. 여름에는 문예집을 발간하며 10월 하순에 2박3일 일정으로 외국에 사는 친구들도 함께 제주도 여행을 하고 11월 24일 정기 총회와 송년회로 뜨거운 우정과 추억 만들기 한해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랑하는 선후배님의 뜨거운 박수를 기다립니다.



글_심상덕(25회 동기회 부회장)





적재적소의 인재가 필요할 때! 어디서 찾으십니까?

맞춤형 인재, 아웃소싱 전문기업 **S&B휴먼**에서 찾으십시오!

인재파견



- 사무
- 비서
- 콜센터
- 운전기사
- 채용대행

도급



- 물류센터
- 생산직
- 병원
- 호텔

건물관리



- 경비
- 미화
- 주차
- 시설관리
- 보안

대표: 김여영 (부고21회) 010-5662-7003

주소: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27 풍림빌딩 1117호

전화: 02-713-5033 / 팩스: 02-714-5033 / 이메일: snbhuman@snbhuman.co.kr



Smart and Best Human Resource Service





졸업40주년 35회 서리가 하얗게 내린 쏘대들이지만 그저 바라만 봐도 좋은 동기들



울 적한 마음 달래려고 버스에 올라탔는데, 나는 정말 반했다네! 정말 맛있는 부고 아가씨! 얼굴도 예쁘고 고요, 가방도 받아주고요. 나는 정말 반했다네! 정말 맛있는 부고 아가씨!

외국민요 <산 아가씨>를 개사한 노래가 귓가를 스치며 내 입가에 미소를 머금게 한다.

1980년 입학하여 1983년 졸업까지 마지막 교복세대로, 단발머리 찰랑이며 입학했고, 두발자유화로 긴 머리 귀 뒤로 넘겨가며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등화관계 때문에 가로등 꺼진 길을 걸어 집으로 가곤 했던 일이 벌써 40년 전 이야기라니! <격세지감(隔世之感)>이 피부로 와 닿는 2022년을 보낼 준비를 하며 35회 동창 송년회를 한 지 벌써 두 달이 훌쩍 지나버렸다.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사는 친구들이 모여서 우리의 육신을 어떻게 준비할까 설왕설래하는 사이에 이미 쏘대가 되어버린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궁금하지 않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도 좋고, 술 한 잔

기울이며 행복해하고 있었다.

졸업 후 그 이듬해인 1984년에 명동 <한일회관>에서 누가 주관을 하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동기모임이 있었고, (그때 대학 새내기들이라 모두가 그저 신나 있었던 기억이다.) 그 후론 모임이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1987년도 즈음에 은행에 근무하던 나는 우리 부고 출신 선배언니들과 모임을 가졌었다. (28회 이수경 선배, 32회 김명래, 김영옥 선배, 34회 김애란, 문옥순 선배, 35회 강미정, 한 분 더 있었는데 얼굴만 가물가물 아름이 영 생각나지 않는다.) 그 모임도 선배언니들이 하나 둘 결혼하며 흐지부지 멀어졌다.

나의 아들 꿀복이(별명)가 고교 진학을 앞두고, 사대부고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다시 동기들과 만남을 가진지도 13년이 지나갔다. 부엌에서 저녁준비 하다가 친구의 전화를 받았었고, 집에서 입던 옷차림 그대로 훌린 듯이 친구들을 만나러 갔던 13년 전의 그 일은 나의 가장 빛났던 청춘의 그 시절로 달음박질치게 해 주었었다. 30주년 때는 정동진에 일출 보러 청량리에서 밤 기차타고 수학여행 때



마냥 설렘에 들며 밤새 이야기 나누고 사진 찍고, 50이 되고, 반백년의 세월을 잘 살아 냈다고 추억했었다. 벌써 또 한 번의 강산이 뒤바뀌어 우리는 네 번째의 뒤바뀐 강산을 살아가고 있다.

지난해 선농축전은 <스승의 날>과 겹쳤었고, 17회 선배님이신 유기동 선생님께 인사간 친구에게 우리 <부고 총동문 산악회>를 우리 35회가 내년에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고 하신 말씀에 두 말 않고 <예>라고 대답한 친구를 우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러자>고 했다. 그 동안 우리기수 <청.바.지> 산악회 모임 회장을 해오던 친구는 드러내지 않고 간간히 <총동문산악회>에 참석해 왔었다. 선, 후배님들도 잘 모르고 우리 동기들도 잘 몰랐던 일이었다.

그래서 작년 7월부터 우리는 매달 <총동문산악회> 등산 모임에 참여했고, 등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던 친구들도 서로 도와 가며 함께하고, 일부러 참석하고, 뒤풀이라도 참석하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졸업 40주년은 <총 동문 산



악회)와 함께 봉사하는, 뜻깊은 일이 되었다. 어떤 친구는 오랜 동안 헤어져 살았던 형제를 다시 만난 것 같다고도 하고, 또 한 친구는 삶의 활력이 생기는 것 같다고도 하고, 다른 친구는 인간관계의 폭이 한층 넓어진 것 같다고 하고, 솔직히 나는 새롭게 취업을(?) 한 것 같다. 다시 가슴이 두근거리고, 생활에 활력이 생기고, 그동안 <코비드 19 팬데믹>에 의한 우울감이 다 날아간 것 같다. 매일 앤돌핀이 솟구친다.

우리 서울사대부고가 남녀공학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우리가 만나서 등산가고, 밥 먹고, 술도 마시고, 사춘기를 이기는 사춘기(갱년기)로 인생 후반전을 씩씩하게 맞이할 수 있을까? 힘들 때 불러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고, 함께 산에 가 주고, 어려울 때 격려해 주고, 말없이 기다려 주고, 우리는 머리에 하얗게 서리 내린 꼰대들이지만, 우리 끼리 만큼은 고교시절의 추억을 간직한 소년소녀들로 돌아가서 함께 이야기하고 웃어 준다. 애들아! 우리 졸업 40주년에 시작한 이 만남은 50주년 때도 주~욱 이어서 가자. <기쁜 우리 젊은 날>의 추억들아!

글_김영숙(35회)



동창회관 대관 안내

층별	호수	용도	수용인원	설비	대관료 (동문 30%)	
					주간	야간
	202	대회의실	20~30	빔프로젝트	100,000	150,000
					70,000	105,000
	203	소회의실	16	빔프로젝트, 피아노	50,000	65,000
					35,000	45,000
	204	컴퓨터실	10	컴퓨터 10대	50,000	65,000
					35,000	45,000
3층	선농홀	연회장, 강의, 회의실	60	그랜드피아노, 빔프로젝트, 마이크, 노래방 (사용료 5만원 별도)	300,000	350,000
					210,000	245,000
	301	합창연습실, 회의실	20	피아노	70,000	100,000
					49,000	70,000

주간 10:00 ~ 17:00 야간 17:00 ~ 21:00 (사용시간 2시간 기준) tel 02-588-7871 010-5892-7871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103-688336 서울사대부고동창회



졸업 30주년 45회 우리들은 지금 화양연화(花樣年華)



우 체부, 변호사, 회사 임원, 기자, 식당 주인, 대학교 사무처 직원, 증권가 애널리스트, 선생님, 무역업자, 건축가, 웹디자이너...

이것은 단순히 직업을 나열한 것이 아니다. 1993년 서울 사대부고를 졸업하고 정확히 30년이 지난 2023년 우리들이 일선 현장에서 불리는 호칭이다.

그렇다. 20살이 되어 성인식을 치룬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년이 지났다. 우리가 고등학교를 입학하던 1990년은 중고생들이 다시 교복을 입게 된 첫 해이다. 우리들은 자율복장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했고 교복을 입고 졸업식에 참석했다.

돌이켜보면 우리들의 인생에는 새로운 것이 무척 많았던 것 같다. 우리들이 20살이 되던 해에 사람들은 우리들을 'X세대'라고 불렀다. 문화 대통령 서태지는 우리들의 정신 세계를 관통했고, 대학 생활을 거의 마쳐갈 무렵 IMF사태가 터져 취업 전선에 어려움을 크게 겪었다.

우리들은 어느새 한 명씩 한 명씩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으며, 우리들의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자식들을 위해 온 힘을 바치고 있다.

이제 우리의 머리에는 하얀 눈이 내리고 있다. 과거의 모든 것을 덮고 새하얀 미래를 만들어 가는 눈이 내리고 있다.

누군가에게 그 눈은 가는 세월을 안타까워할 것이고, 누군가에게 그 눈은 과거를 지나온 흔적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는 X세대로 기존과는 다른 세대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IMF를 맞이하면서 엄청난 시련의 청춘을 보냈다. 그리고 이제 눈을 맞으면서 화양연화를 맞이하자.

2000년에 개봉한 영화 '화양연화'가 있다. 톱스타 양조위와 장만옥이 나온 영화인데 중년의 두 남녀가 완숙한 사랑을 담아낸 영화이다. 화양연화는 인생에서 꽃 같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을 의미한다. 우리는 현재 눈을 맞고 있는 매화와 같다. 즉, 인생의 찬란한 시절인 봄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다.

물론 누군가에게는 20대가 봄이라고 하고, 누군가에게는 30대가 봄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아직 봄이 오지 않았다. 그리고 눈 위에 핀 우리는 매화 즉 화양연화이다. 50대 접어들면서 눈은 내리고, 그리고 꽃봉우리는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 인생에서 화양연화는 '눈 내리는 매화'와 같은 50대라고 할 수 있다.

50대 우리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자.

사대부고 졸업생들의 찬란한 화양연화를 위해 오늘도 '파이팅'~~

글_전수용(45회)



졸업 20주년 55회 속도를 즐기지만 낭만도 넘치는 우린 20년째 고교졸업반



다시 돌이켜보면 '축복의 세대'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아날로그와 디지털 경계에서 두 가지의 상이한 문화와 시스템, 충격적인 세계의 변화에 가장 피부에 와 닿는 80년생들의 인생은 확실한 어느 누구의 길라잡이보다는 직접 부딪혀 습득하고 익숙해져야만 했던 조금은 처절하지만 독특하고 스펙터클한 세대라는 생각이 든다.

펜팔로 혹은 손 편지, 쪽지로 주고받다 몇 년 사이 삐삐가 나오고, 그 후 몇 년 사이 시티폰과 핸드폰이라는 엄청난 편리한 문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쉬는 시간을 기다리며 종이 치면 정성껏 쓴 편지를 친구 혹은 좋아하는 이성에게 수줍게 건네던 초등학교를 지나, 간결하고 의미 있는 숫자 나열로 마음을 표현하고 암호화 하던 삐삐를 거쳐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메일로 e-편지를 쓰던 세대.

테이프를 사다가 CD를 사고 MD를 쓰다 음악을 자유자재로 넣을 수 있는 MP3를 쓰던 세대.

한국 음악의 황금기였던 90년대-2000년대 초반까지 다양한 음악들과 외국 음악들조차 큰 어려움 없이 찾아서 손쉽게 듣고 감성을 쌓아갈 수 있었던 나의 세대가 축복이지 않을까 싶다.

손가락 하나로 까딱하면 모든 게 이루어지고 간결해진 지금, 어느 누구도 지금의 속도와 간결함에 만족하는 이는 없다.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다양하게를 원하고 갈증을 낸다. 속도만큼 우리나라는 세계 속의 중심이 되었지만, 그 속도만큼 비례하여 낭만과 무드는 무뎌진다. 어느 세대나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세대에게 소위 그 시절을 나열하는 순간 '꼰대'라는 상징적인 단어로 통념된다. 하지만 어느새 누군가의 남편과 아내, 누군가의 아빠, 엄마가 된 친구들을 가끔이나마 볼 때면 그 시절 그 때의 추억을 얘기하고 그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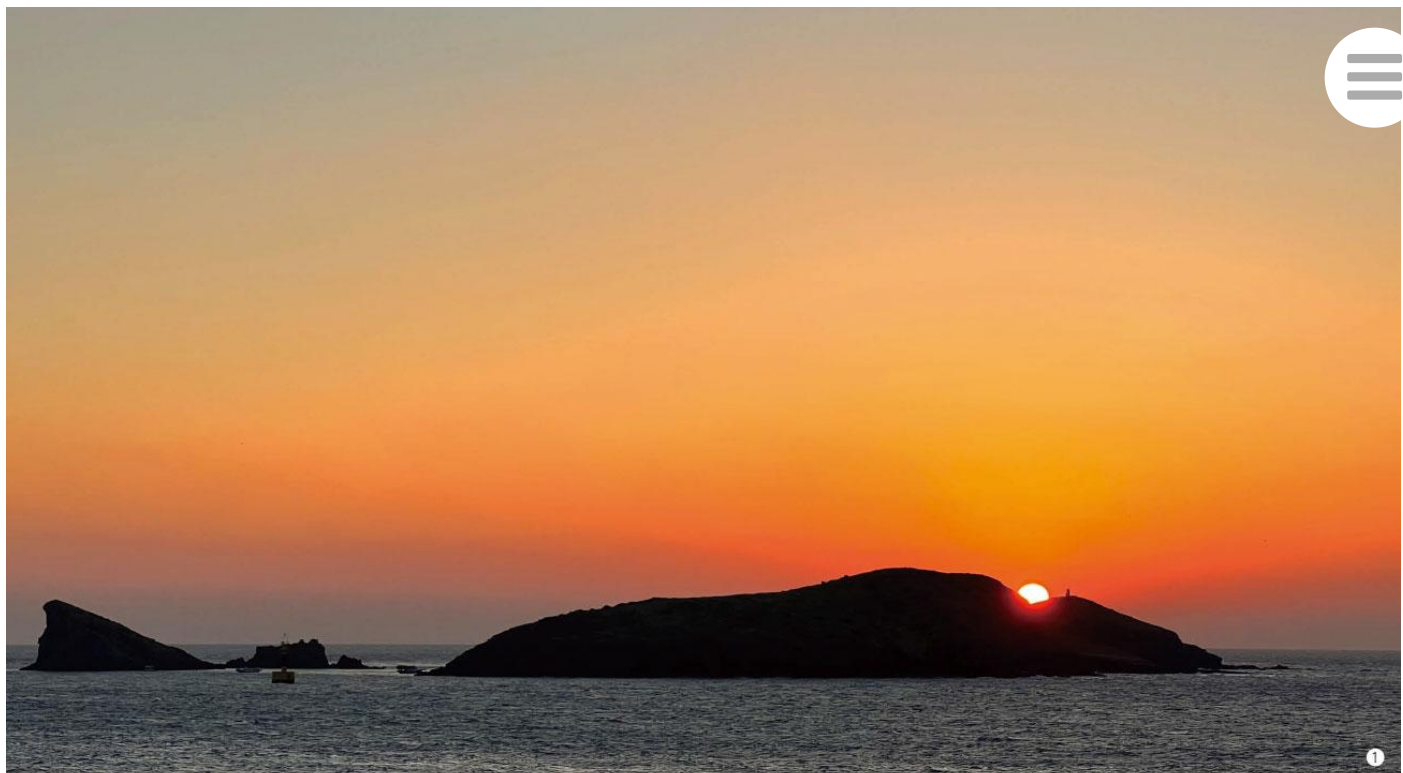
노래를 부르고 그때의 우리를 끄집어낸다. 어느 누구도 반기 들지 않고 온전한 그 때의 추억을 느낄 수 있는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했던 84년생의 낭만이 흐르던 시절.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나라를 위해, 회사를 위해,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버티고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조금이나마 그 때를 느낄 수 있는 그 세대를 어우를 수 있는 음악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불혹(不惑)이라는 젊지만 조금씩 머리에 눈꽃이 쌓여가는 40대의 출발선에서 지금 세대의 흐름과 패턴을 익히기 위해 열심히 아둥바둥 살고 있는 55회 졸업생들에게 어릴 적 우리가 해왔던 익숙함이라 얘기하며 위안을 주고 싶다.



글_이용민(55회)





동문 핫플레이스 **신용학** (32회)

제주 바다 ‘고래 섬’ 차귀도 앞엔 카페 데스틸이 있다

제주 올레길 12코스의 끝부분에 있는 차귀도는 제주 서쪽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청정지역이다. 해비치 호텔 & 리조트 제주 총지배인을 지낸 신용학 동문은 비양도를 왔다가 우연히 들린 차귀도에서 고래 모양을 닮은 섬을 만났다.

마침 제주에서 노후를 보내며 지낼 장소를 찾던 중이었기에 한걸음에 마을 주민을 찾았다는 신용학 동문. 그는 고래를 닮은 섬을 볼 수 있는 이 땅을 매입하는데, 1년의 세월이 걸렸다고 한다. 1년이란 세월은 땅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7남매가 가족회의를 통해 땅을 팔기로 하는데 걸린 시간이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노후를 준비하면서 저만의 공간을 외부인과 공유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장을 만들기 위해 차린 곳이 ‘카페 데스틸(Cafe De Stijl)’입니다.”

석양이 아름다운 바다에 고래 한 마리가 떠 있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카페 데스틸은 지난 2020년 3월에 준공

을 받고 영업 허가를 받았다. 카페를 오픈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소개하는 신용학 동문은 제주스러운 곳에서 고래를 닮은 차귀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특별한 매력이 있다고 말한다.

데스틸은 1917년 네덜란드에서 피에트 몬드리안, 테오 판 뒤스푸르흐 등을 중심으로 한 추상 미술 운동으로 점, 선, 면만을 이용한 ‘차가운 추상주의’를 말한다. 빨강, 파랑, 노랑의 삼원색과 흰색, 회색, 검정색의 삼비색만으로 수평과 수직으로 대표하는 이원론을 중심으로 신조형주의 이론을 완성한 신조형주의는 20세기 미술과 건축 등에 영향을 주었다.

신조형주의의 표현은 카페 안에서도 만날 수 있다. 시선을 돌리면 간간히 보이는 노랑, 파랑, 빨강의 색상이 눈에 들어오고, 창틀을 보면 고래를 닮은 섬을 데스틸로 담아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빨강은 노을, 노랑은 태양, 파랑은 바다를 표현했다는 것이 신 동문의 설명이다.





사진설명

- ① 고래를 닮은 섬, 차귀도로 지는 해
- ② 카페 데스틸에서 바라본 차귀도의 노을 장면
- ③ 신용학 카페 데스틸 대표
- ④ 시그니처인 데스틸 빵과 아이스페너
- ⑤ 카페 데스틸에서만 맛 볼 수 있는 오란프레소

차귀도에서 발견한 고래는 카페 안에서도 감상할 수 있지만, 빨간 계단을 따라 올라간 옥탑에서도 만날 수 있다. 옥탑으로 올라가면서 살짝 살짝 노출되는 파란색, 노란색을 만날 수 있는데, 신 동문은 계단을 올라가는 과정을 ‘여정’이라고 표현한다. 지붕의 청제 조형도 고래를 닮은 차귀도 섬 모양을 하고 있다.

카페 데스틸의 시그니처는 ‘오란프레소’. 오렌지청, 에스프레소, 3가지 재료로 만든 즉석 생크림이 올려진 오란프레소는 손님들에게 ‘고진감래’, ‘인생 최고의 맛’이라는 평을 듣는다고.

“오란프레소를 맛있게 마시는 방법은 잔을 약간 기울

여서 에스프레소가 흘러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입술로 빨아들이면 생크림만 먹게 되기 때문에 천천히 마시는 것을 추천하며, 마지막으로 달콤한 오렌지청을 맛보시면 됩니다.”

오란프레소와 함께 ‘데스틸 빵’도 인기 만점이다. 다크 초코 브라우니로 만드는 데스틸 빵은 차귀도의 고래를 디자인한 것으로 독특한 모양 덕분에 사랑을 받는다고 한다. 네이버 검색창에 ‘카페 데스틸’을 치면, 평점 5점 만점에 4.46을 받을 정도로 제주 여행에 빼 놓을 수 없는 카페 데스틸은 2021년 제주건축문화축제 특선을 수상한 곳이기도 하다.

글·사진_조용식(35회)





동문 핫플레이스 **강병현** (29회)

북한강변엔 명품 베이커리 카페 ‘로이테’가...

모진 추위도 조금은 지나간 2월에 29회 강병현 동문이 몇 달전 문을 열었다는 카페 로이테를 다녀왔다.

도로변에 바로 있고 건너편에는 유명한 남양주종합촬영소 들어가는길 맞은편 위치하여 찾기는 매우 쉬웠다.

주차를 하는데 여기저기 둘러보며 세심한 신경을 쓰고 계신 분이 강병현 동문이구나 바로 알 수가 있었다.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진 LEUTE 라는 독일어 단어만 붙어 있는 건물은 외부에서 봤을 때 카페 베이커리 이런 단어를 다빼고 LEUTE 만 표기하여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기위함이라고 한다.

나 또한 처음 봤을 때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느낌으로 카페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건물은 총 4개 층으로 구성되어있고 4개의 Zone으로 이루어져 있다.

GF-Scent Zone, 1F-Main Zone, 2F-Art Z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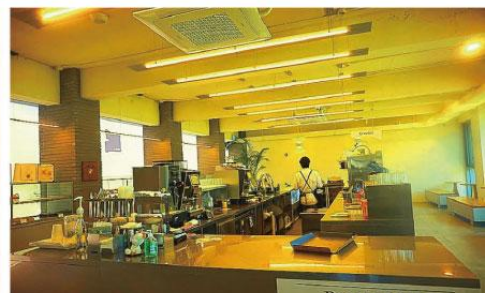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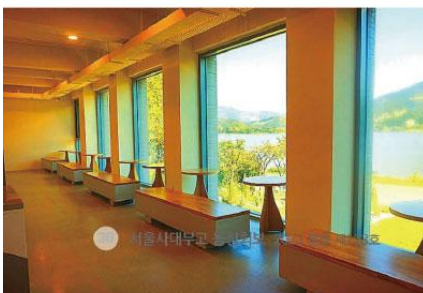
3F-Sound Zone으로 운영되며 베이킹 룸도 따로 마련되어 있다.

각 층마다 각기 다른 분위기와 인테리어로 마치 미술관에 온듯한 첫인상과 세심하게 장식된 소품 하나 하나에서 강병현 동문의 열정이 느껴졌다.

카페를 열게된 동기는 뭘까

퇴직을 한 후 무엇을 할까 많은 생각을 하다 가족과 다함께 할 수 있고 나중이라도 자녀 셋이 사이좋게 오래도록 자기들끼리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찾다 카페를 생각했다고. 그리고 자신도 매일 북한강 바라보면서 이렇게 아침에 여기 앉아 차도 마시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이 느껴졌다. 나 없는 먼 훗날까지도 생각하는 우리네 부모님







들의 마음이 느껴져 순간 많은 생각이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분위기를 바꿔 혹시 동문들에게 주는 혜택이 있을까 하고 여쭙보니 생각은 해보셨다고 하시면서 동네분들께도 혜택을 드려야하는데 현재 시스템적으로 따로 할인을 할 수가 없어 나중에 후원을 생각하신다고. 우리 동문들도 많이 방문하시면 향후 동창회에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흔쾌히 약속하셨다.

끝으로 우리 동문들에게 바라시는게 있으신가요.

“제가 카페 운영자로서의 바람은 커다란 희망을 가지고 힘들여서 오픈을 했으니 많은 동문들이 왕립해 주셔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방문하시면 절대 실망할 공간은 아니니 많이들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근교라 서울과도 가깝고 동문과 친구들과 가족과 함께 방문하면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북한강을 바라보며 멋진 풍경과 함께 분위기가 너무나 좋아서 동문들에게도 꼬옥 한 번 방문하여 차와 함께 물명도 한 번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다. 주말에는 불명까지도 가능하다고...

강변을 따라 드라이브도 하고 바쁘게 사느라 갖지 못한 마음의 여유도 느끼면서 북한강과 함께 생각에 푸욱 빠져 볼 수 있을 것 같다.

글_김미미(34회)

지난 가을에 만난 진한 커피향

60 중반에 들어선 29회 동기들 모습이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연륜이 쌓인 모습들에 살아가는 모습도 둥글게 물 흐르듯 평온하게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고교 시절 2학년 6반 박연수 선생님이 담임이었던 친구들 7명이 졸업하고 teen이라는 모임이 결성(?)되어 한 달에 한번 꾸준히 45년을 모임을 하고 있어요.

2명은 지금은 미주권에 살고 있고 현재는 5명이 모임을 하며 서로 우정을 나누며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정기모임은 29회 동기 강병헌 친구가 새로 오픈한 양평 조안면에 카페 로이테에서 모임을 하였습니다.

북한강 뷰가 그대로 담겨있는 창문 밖 가을 풍경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친구들의 밝은 표정에서 45년 전 단발머리의 교복 모습이 스쳐갑니다. 카페 로이테는 케이크, 커피가 맛있고 창문 밖 풍경도 멋진 뷰 맛집이네요. 케이크, 커피, 뷰 삼박자 맛집입니다~.

강병헌 동기의 카페 로이테 대박 나길 기원합니다.

파란 하늘에 화창했던 가을 10월에 친구들과의 모임으로 또 한 페이지의 추억이 담았습니다.

♡ teen forever♡

글_박미숙(29회)



선농뮤지컬 단원들은 이토록 행복합니다

▶ 선농뮤지컬단 _ 단장 심상덕(25회)

우리들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어린애들 놀이 같아~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서 밤하늘을 날아 공전으로 갈 수도 있어~

(노래를 부릅니다. 춤을 춥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간. 반세기 전의 학창시절에 겪었던 경험을 불러오는 시간들... 이러한 떨림에 선농뮤지컬단 창단 멤버들은 이렇게 행복합니다.

▶ 인류 문화 예술의 꽃, 뮤지컬! 천하부고 동문들이 그 꽃을 피워보겠다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이름은 선농뮤지컬단!

- 권혁준(42회) 음악감독

▶ 천하부고의 자존심을 높여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토리! 왕초보들의 노래, 춤, 연기가 반짝 반짝 빛날 무대를 기대해 주세요!

- 박은애(46회) 음악조감독

▶ 황홀한 뮤지컬에 도전한 천하부고인들이 빛나고 발전할 수 있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이순규(10회)

▶ 함께 모여 만드는 새로운 일에 도전! 열기와 한마음으로 뮤지컬 창단에 함께 합니다. - 강정혜(34회)

▶ 새로운 도전이 나를 깨운다. 모두여서 할 수 있을꺼야~ 최희경(26회)

▶ 뮤지컬은 보는 것인줄만 알았는데, 내가 무대에 서다니... 우리 함께여서 가능합니다! 아자!아자! - 최윤진(36회)

▶ 내 삶이 지치고 피로하다 느껴질 때 날 위로하고 힘을 주는 뮤지컬~! 나를 눈부시고 아름다운 그시절로 다시 꿈꾸게 합니다.

- 정혜영(47회)

▶ 이젠 꿈인걸까요? 동문 찬스, 동문 혜택 듬뿍 받고 있습니다. 수십년 다른 시간을 살아온 단원들과 굳게 손잡고 꼭 주춧돌입니다. 흑백이던 일상을 멋진 채색으로 바꿔줄 기적의 뮤지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함옥기(25회)

▶ 천하부고 사대부고의 열정적인 분들과 함께 뮤지컬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쁘지요!!! - 김선영 연출

▶ 뮤지컬 삼행시 - 유: 뮤즈 신이 자: 지켜줄꺼야 컬: 컬컬한 목소리 대박 나도록 '선농뮤지컬 핫팅입니다.' - 황기하(24회)

▶ 서울사대부고 단원들의 따뜻하고 아름다웠던 시절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 김태현 조연출

▶ 오늘 즐겁다. 어제도 즐거웠다. 내일은 더 즐거울 것이다. 우리의 선농뮤지컬 ~! - 이화연(17회)

▶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뮤지컬 공부한다고 했더니 "우리 할아버지 대단하시다."고 하네요! - 신진우(17회)

▶ 새로운 모험에 도전합니다. 또 하나의 멋진 추억을 만들어 봐요! - 채웅석(47회)



▶ 선농뮤지컬 창립 단원으로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디곤... 무대에 함께 오를 동문 선 후배님과의 즐거운 만남, 그리고 행복한 만남이 기다려지는 모임입니다. 우리 선농뮤지컬단 펑펑 밀어주세요! - 정순철(36회)

▶ 내 나이 칠순에 뮤지컬? 진짜 미션임파서블! 음악계 톱크루즈들이 서울사대부고 동창회에서... 올11월 미션임파서블 개봉예정 기대하시라 고대하시라♡ - 황용희(25회)

▶ 서울사대부고 동문이기에 <1+1+1+5+3+1+2+1+1+1+1+1+1+1+2+1+1=?> 이렇게 모인 <빨주노초파남보>. 서로 다른 빛 함께 모아 하얀 빛 만들어갑니다. 우리학교 종합예술의 힘을 새 무대에 올려 널리 알립니다. 쉽지 않지만 마냥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들입니다. 기리리라~서울사대부고!! - 심상덕(25회)

※ 선농뮤지컬 창단 열정에 선후배님들의 사랑 더함을 기다립니다.

■ 후원 계좌: 신한 132-125-185714 선농뮤지컬

● 선봉회 _ 회장 최승우(17회)



선봉회(서울사대부고 JRC 동문회)는 지난 12월 27일 저녁 6시 서울 양재동 L타워에서 송년회 겸 정기총회를 가졌다. 52명의 회원 중 48명이 모여 최고의 참석율을 보였는데 특히 이번에는 선봉회 최고 기수(13회)에서 김일홍, 손근, 조지명, 현광언 등 네 명의 선배님이 모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셨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회장 인사말씀 및 주요활동 보고, 회계 보고, 안건 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사회는 선봉회의 만년 MC 정강현(18회) 동문이 사회를 맡았다. 이 날 회의에서 신임 회장으로 윤제철(18회) 동문이 선임되었으며, 회원들의 연회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 청구회 _ 회장 오호진(30회)

지난해 11월 22일 394회 청구회 2022년 납회 모임을 19팀(76명) 동문들과 뉴스프링빌CC에서 라운드를 했으며 즐겁게 마무리 했다.

3년동안 청구회 운영을 맡아주셨던 이경진(29회) 전 회장님과 2023년 부터 청구회 운영을 맡아주실 오호진(30회) 신임회장의 이취임식이 있었다.

재임기간 중 청구회 50주년 행사 및 제15회 동창회장배 골프대회까지 많은 동문이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이경진 전 회장님 이하 운영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또한 2023년 오호진 회장님과 청구회 진행을 도울 새로운 운영진이 조직 되었다.



회장: 오호진(30회), 감사: 최관호(27회)
수석부회장: 최치영(36회)
경기위원장: 유대균(39회)
총무: 김형찬(42회)
총무팀: 정동균(44회), 박종학(48회), 조영승(49회)

경기팀: 안정화(44회), 김민승(47회)
홍보팀: 우남영(47회), 채웅석(47회), 임성원(48회)
청구회 모임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새로운 동문들의 참여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진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

공식 행사 후 저녁 식사와 여행을 즐겼다. 여행시간에 모처럼 노래 자랑을 했는데 색소폰 반주자와 노래 반주기를 불러 모두들 흥겹게 노래하고 춤을 추기도 했다. 우승팀에게는 행운권과 선물이 나누어졌다. 최승우 회장은 여행 중에 사용된 행운권 5만 원 10장과 참석자 모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 또한 막내 강상빈(19회) 동문은 녹차 미네랄 소금 1통씩을 송년 기념품으로 나누어 주었다.

●선농기우회 _ 회장 박화범(26회)



세계적 팬데믹(코로나19)로 인하여 2~3년간 중지되어 왔던 총동회장배 바둑대회가 역대 회장단 및 1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이종문 선기회 회장님의 주관하에 지난해 10월 9일 모교강당에서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코로나로 인하여 수년 만에 개최하는 대회인지라 선수로 참가하신 선후배 동문님들이 서로 주고 받는 대화가 더욱 애뜻하고 정감이 넘쳐 나는 대회였다.

이번 대회는 그동안 이종문 회장님께서 10여 년 동안 홀로 고군분투하시며 대회를 이끌어 오신 노고에 29회가 총무단으로 가세하여 대회 일정을 손조롭게 마무리 함으로써 더욱 돈독한 선후배 동

문간의 우정과 협치를 배가한 대회이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향후 이러한 협치를 바탕으로 더욱 빛나고 아름다운 동문 바둑 경연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금년 3월부터 총동회관 3층에 바둑 교실을 매주 2회/월8회(수, 금요일) 오픈하여 선후배 동문간의 친선 교류전을 운영하려고 한다.

동문 바둑 동호인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금년 2월부터 고교별 상비군 대항전이 성동구 흥익동 한국기원 2층 대강당에서 시작되었다. 32강전 일정표(총동창회 홈페이지 참고)를 올리니 동문 동호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바둑을 사랑하는 동문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며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선농경영인회 _ 회장 김기명(27회)



선경회는 2022년 12월 15일 이강년 전 총동창회장 등 내외 귀빈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 행사를 갖고 2022년 지난 한 해 동안의 사업과 새해 계획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친목을 다지는 송년회를 가졌다.



지회소식

● 선농여성전문인회 _ 회장 정범순(20회)



선농여성전문인회는 2월 9일 엠버서더 호텔에서 조찬 특강과 함께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강의는 전 덕성여대 총장이자 여행만화 <먼나라 이웃나라>의 저자인 이원복씨가 초청되었다. 정기총회에서는 2023년 선녀회의 모든 행사를 확정 짓고 한 해를 출발한다. 총회 이후 첫 행사로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제주 미술관과 건축을 둘러보는 문화투어를 떠난다. 이번 제주 아트투어에는 미술평론가 윤상인 교수가 동행하여 해설을 맡기로 하였다.

● 선향회 _ 회장 정정화(34회)



매월 두 번째 토요일을 즐겁게 지내는 선향회는 2023년 새로운 회장(정정화, 34회)을 앞세워 선향회 다운 모임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했다. 첫 모임은 '한양의 골목에서 조선을 보다'를 <공평 도시 유적전시관>에서 진행했다. 전시관 해설사께서 맛있는 설명을 곁들여 준 덕분에 도심 빌딩 지하에서 한양의 골목을 걷는 색다른 경험을 했고, 10회 김태무, 이규진, 16회 신해순 선배들을 포함해서 모두 19명의 회원이 참석해서 선향회 다운 시간을 가졌다. 2월 모임은 10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오른 대학로 흥행작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연극 <서툰 사람들>을 관람하고 3월은 한탄강 지질공원을 모임지로 정해서 한탄강 지역의 지질여행을 다녀올 계획이다. 4월은 어떤 답사를 다녀올까요? 선향회소식은 계속 이어진다.

● 나라사랑모임 _ 회장 이형권(25회)



나라사랑모임은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철 지난 공산주의 이념, 세습독재를 합리화하기 위한 북한의 주체사상, 그리고 이

를 추종하는 종북주사파를 배격한다. 매 주말 애국집회에 참여하는 동시에 1월 6일에는 국립현충원에서 무명용사탑,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였고, 1월 20일엔 용산역에서 구정귀성객 상대로 자유대한민국 수호 홍보 행사를 치렀다.

5월 중에는 호국간성의 요람 육군사관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소개영화 관람, 박물관 견학 후 사관생도들의 퍼레이드를 관람할 예정이다. 현충일을 전후하여 국립현충원 참배도 계획되어 있다. 누구나 애국한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지금은 숨어서 하는 애국보다 표현하고 행동하는 애국이 필요할 때이다. 동문 여러분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

오는 3월 11일 15:00 동창회관 회의실에서 열리는 2023 나라사랑모임 정기총회에 초대하오니 많이 참석해주시기 바란다.

▶ 선건회 _ 회장 김영익(28회)



선건회는 건설업에 종사하거나 관심 있는 동문들이 모인다. 그리고 선건회는 동창회에 등록된 지회 중에서 유일한 특정직종의 친목단체인데다. 구성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업종을 살펴보면 건설회사, 건설관련 설계용역사, 폐기물업체, 안전진단업체, 부동산건설업체, 대학 등의 건설과 직접관련 업종 외에 조각가, 변리사, 신문기자 등이 모여 있다. 따라서 이 모임에 오면 건설 및 부동산에 대한 정보 및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고, 건설관련 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 관심이 계신 동문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 사진은 지난해 말인 12월 16일(금) 저녁에 양재동 소재 한 음식점에서의 송년회 모습이다.

▶ 총동합창단 _ 단장 김태식(22회)



총동합창단은 2월 14일 총회와 첫 연습을 열고 2023년 활동을 시작했다.

총동합창단은 총회에서 올해 주요 사업계획으로 정기연주회와 연



주력 향상을 위한 특강, 선농축전과 총동창회 송년회 연주 등을 계획하고 2023년 연습 악보집을 배포했다.

합창단은 또 올해 젊은 단원 확보를 위해 전 단원이 총력을 기울이고 총동창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네트워크 시스템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총동합창단은 동문들의 친목과 여가선용은 물론 동창회와 모교의 각종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고교동문합창단연합의 일원으로 합창제와 유엔평화음악회 등 공식성 행사에 참여하여 사대부와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 합창단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동창회관 3층 선농홀에서 연습중이다. 입단문의: 단장 010-4940-8195, 총무 010-9470-2431

▶총동문산악회 _ 회장 차승환(35회)



총동문산악회는 제400차 산행으로 함박눈이 쏟아지는 원주 소금산 그랜드 벨리 눈꽃 산행을 다녀왔다. 2023년 첫 산행이기도 한 소금산 산행은 함박눈이 쏟아지는 가운데, 소금산 출렁다리과 울릉다리를 거쳐 내려오는 코스를 택했다. 1월 15일 산행에는 116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도봉산 탐방지원센터 출발에서 진행된 '2023 시산제(2월 19일)'에서는 230여 명의 산악회원이 참석해 '계묘년 무사고 안전 산행'을 기원하고, 총동문산악회 회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결의했다.

▶성우회 _ 회장 정지선(30회)



헨델의 <메시아> 중 할렐루야 합창이 악수동 주내침교회 본당에 울려 퍼졌다. 1년에 한 번 부르는 곡이지만 4부로 나누어 합창을 한다. 빠른 박자에 숨은 가쁘지만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하다. 12월 19일, 7회 경동호 선배님부터 65회 동문까지 38명의 믿음의 동문들이 모여 31회 주관으로 성탄축하예배를 드렸다. 아기 예수의 탄생에 관한 성경을 함께 읽고 성탄 찬송을 부르며 감사와 경배를 드린 후 여러 동문이 가져온 간식으로 풍성한 은혜의 삶을 나누었다.

●도서반 _ 회장 김기황(24회)



2월 23일 청계천의 음식점 산채향에서 4년만에 모임을 가졌다. 17회에서 33회에 걸쳐 35명의 동문들이 모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추억을 회상하고 서로 서로 그동안의 안부와 건강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을 누렸다. 17회 신진우 동문의 격려사를 비롯 18회 장구하 동문의 건강 이야기등 동문 한사람 한사람 자기소개와 '들려주고픈' 이야기를 나누고 "아름다운 인연으로~"로 시작되는 도서반가 제창을 마지막으로 아쉬움을 달랬다. 본회는 회장 김기황(24회), 부회장 최애자(26회), 총무 유동선(26회)의 임원진으로 금년에 5월 춘계 소모임과 10월 추계 소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고양파주지회 _ 회장 이재훈(29회)



매서운 추위 끝자락에 2월 14일 동영애(22회), 김영철(24회) 동문부터 오랜만에 참여한 최창동(30회), 이애용(35회) 동문, 멀리 영주에서 참여한 최흥병(32회) 동문 포함하여 22명 동문들이 일산 신라면역에서 모임을 가졌다. 우리지회 동문들은 더욱더 결집하고 끈끈함이 은근히 베어 있는듯 서로의 안부와 그간의 그리움 해소에 여념이 없는 시간이었다. 식사후 2차로 호프집에서 삼삼오오 생맥주로 못다한 정담을 나누었다. 2차를 계산한 김경진(30회)과 이애용(35회) 동문께 감사드리다. 그래도 만남이 부족한지 9명의 동문이 모여 노래 한곡씩 하면서 2023년 첫 모임을 끝내고 4월에 모임을 기약하면서 모임을 마무리하였다. 우리 지회의 근간인 열일마다하고 늘 참여하는 동문께 새삼 감사드리며, 어떤 모임보다 마음이 편안하고 위로가 되는 모임으로 지향해 갈 것을 약속드리다.

▶제주지회 _ 회장 박혜균(26회)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천혜의 섬! 한 해 1200만 명이 다



● 지회소식

녀가는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이자, 서울의 3배가 되는 넓은 면적에, 인구 67만의 대한민국 최남단의 여유로운 섬, 이곳 '제주도'에 '서울사대부고 동문제주지회모임'이 있다. 제주지역의 특성상, 이동이 잦은 편이지만, 현재 약 20명 정도의 선배 동문들이 서로 연락을 나누며 모임을 가지고 있다.

2006년에 1회이신 김상호 동문이 작고하신 이후로는, 9회 동문 선배님을 필두로 45회 동문이 막내가 되어, 30여년을 아우르는 모임이 되었다. 지난 1월에 실로 오랜만에 노형동의 맛집인 '오키나와 일식집'에서 2023년 신년모임을 가졌다. 참석인원은 10명. 그래도, 코로나 확산 등 여러 사정으로 모임이 제한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3년여 만에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다. 몇 년 만에 만나는 얼굴도 있지만, 서로의 안부와 근황을 묻고 이야기 꽃을 피우는데, 마치 어제 만났던 것 같은 반가운 얼굴들이다.

올해부터는 그간 가지지 못했던 모임을 활성화해서 적어도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모임을 가지며 우의를 다질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문들의 사업장에도 관심을 가지고 심심일만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주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제주를 찾는 사대부고 동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동문이 운영하는 사업장 두 곳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으뜸약국(32회 송찬, 노형로 376)

제주 동문회 총무를 맡고 있는 송찬 동문(32회)이 운영하는 약국인데, 타 약국들이 운영하지 않는 토, 일요일에도 연중무휴 운영하고 있다. 위치는 제주의 관문인 노형로터리고, 여행 중 신제주에 체류할 때 주말에 긴급하게 약이 필요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요긴한 곳이다. 중요한 것은 송찬 동문 본인이 일 년 내내 주말에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카페 데스탈(32회 신용학, 한경면 한경해안로 110)

자세한 내용은 이번호에 실린 특집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 부산지회 _ 회장 박진배(27회)



지난 2월17일, 해운대 블루키친에서 '서사부 동문의 밤' 행사가 있었다. 만 3년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난 자리에서 그 동안 못 나누었던 정담으로 이야기 꽃을 피웠다. 호문익 고문(12회)은 격려사에서 "코로나도 극복했으니, 동문의 정으로 똘똘 뭉쳐 새로운 '천하 부고' 시대를 열어가자"라면서 동문회 활성화를 독려했다. 새로이 회장단에 선출된 회장 박진배(27), 부회장 노철우(28), 유건영 총무(34)는 앞으로 2년간 지회 활성화에 앞장 설 예정이다.

● 재인동문회 _ 단장 이화근(30회)



지난 12월 23일 인천 부평에서 송년모임을 가졌다. 11회 신혜수 선배님은 안양에서 먼 길을 오셨고, 17회 김정규 박흥섭 선배님과 19회 이기승 선배님께서도 불편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셨다. 이번 모임에서는 오랫동안 회장을 맡아 오신 22회 이종문 선배님께서 30회 이화근 동문에게 회장을 물려주셨다. 애달픈 동문소식도 있다. 전신마비로 병고에 있으신 19회 이필환 선배님은 눈빛과 수지로 의사를 표현하신다고 한다. 벌써 10년이 지났다. 10회 진명식 선배님은 노환으로 거동을 못하고 누워 계시지만, 모임문자를 보내면 전화를 주신다. '몸이 불편해서 참석을 못한다는 말씀을 매번 하신다.' 재인동문회는 30회가 막내이다. 인천 부천에 살거나 연고가 있으신 동문 여러분의 참여를 기대한다. 연락주세요. 이화근(30회) 010-2373-8742

● 대전지회 _ 회장 임성팔(27회)



지난 2월 1일, 18명의 대전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계묘(2023)년 새해 인사 모임이 있었다. 모임은 1부 점심식사, 2부 다과회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화기에애한 분위기 가운데 지난 모임(2022.11.8.) 이후의 안부와 새해 만복을 축원하는 덕담을 나누었다. 특별히 이영복 동문(14)께서 점심식사비를 전액 지불하는 호의를 베풀어 참석 동문의 큰 감사를 받았다.

다음 모임은 2023년 4월 12일(수)에 있을 예정이며, '전임 출연연 구기관장 협의회' 회장인 이주진 동문(23)의 협조로 '어울림 플라자' 건물 대회의실에서, 채태식 동문(28회, 현 동문회 수석부회장)의 '각종 노인성 질환에 대한 전통 침, 뜸의 효과'를 주제로 한 세미나와 시연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 2월 1일 모임의 참석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영복(14), 서동수(19), 도영규(20), 서성숙, 강정희(21), 이미근, 이안기, 이주진, 이혜숙, 정태영, 한공창, 홍예영, 김태홍(23), 이영규(25), 임성팔(27), 채태식(28), 임동우(30), 원은미(33)



식약처 인증 KF94 마스크 서울사대부고 동문특가



KF94 네오라이프 소프트
황사방역마스크

새브리형마스크 동문특별 할인판매가

30,000 원

100개(5매×20개)



KF94 네오라이프
황사방역마스크

3D마스크 동문특별 할인판매가

29,000 원

100개(10매×10개)

문자나 카카오톡 주문 가능합니다.

주문처

(주)네오메디제약대표이사 이상민(39회) 010-6437-3777



네오메디제약

의약외품 전문제조사 / OEM전문기업

본사/제1공장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42, 3층 301호(백석동, 유니테크빌)
제2공장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은골길 83-39 www.neomedipharma.com



NEO ESC 네오이에스씨 (건설·기계사업부)

NEO Environment Safety Construction

국내최초 풀림방지 너트

풀리지
않아야
너트다



SAPER
LOCK



배연창/환기창/슬라이딩 배연창





● 동기회 소식

▶10회_ 회장 김태무



지난 2022년 12월 12일 엘타워 8층 열가든홀에서 코로나 이후 3년만에 정기총회 겸 송년회를 열었다. 57명의 많은 동문들이 모여 80중반에 들어선 친구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이 자리에서 임원개선 없이 현 회장 김태무와 부회장 전창일, 김덕희, 총무 민경선, 조정호, 감사 이병재가 전원 유임과 동시 앞으로 임원개선은 없이 현 임원이 계속 맡는 것으로 결정을 보았다. 계묘년 새해에는 1월 7일 인터넷 클럽인 아이클럽 모임을 시작으로 1월 27일에는 산악회 모임인 선농산우회가 영하 15도의 혹한에도 모임을 갖는 등 서로의 건강을 확인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10회 동창회는 매월 1,3주 토요일에 아이클럽, 4번째 금요일 선농산우회의 정기산행을 그리고 봄, 가을에 1박 2일 코스의 테마여행 6월과 12월에는 총회를 갖는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만나고 싶을 때 언제라도 만날 수 있는 즐거운 동창회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11회_ 회장 연홍숙



우리 사대부고 11회 동기들은 여학생 85명, 남학생 108명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고, 해외에 61명이 있다. 1959년 졸업 이후부터 결성된 소그룹 모임으로 끈끈한 정이 지속되고 있다. 2분기 계획으로는 5월 14일 선농 축전에 참가비는 종전과 같이 회비에서 지원할 것을 결정했다. 매월 1, 3주 토요일에 만나는 번개팀 새해 첫 모임이 2월 7일에 있었다. 어쩌다 보니 국적은 달라도 사대부고 11회로 다시 뭉쳐 분당 중앙공원을 걷고 있다. 한국인 6명, 미국인 2명, 영국인 1명 세계시민 모임이 되었다. 점심을 들면서 세상 사는 이야기로 볼꽃을 튕기다가, 공원을 돌며 자연과 더불어 하루를 부듯하게 보냈다.

▶12회_ 회장 강선중



지난해 10월21일 정기총회에서 새로 선출된 임원진에서 2023년도 계획으로 5월과 10월에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소모임인 산악회는 최양일 산악회장의 알뜰한 기획으로 매달 즐거운 추억거리를 만들어주어 모두 즐거워한다. 지난 12월에는 일산 호수공원에서 즐거운 산책을 했다. 호수공원은 면적이 30만m²로 동양 최대의 호수공원으로 남쪽 끝자락에 있는 인공폭포와 중간에 떠 있는 달맞이 섬을 보면서 그동안 못다 한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즐겁게 산책을 했다. 사계절 언제가 봐도 아름다운 호수다. 산책 후 점심은 식당 이름이 '고기가 맛있는 집'으로 갔는데 정말 식당 이름대로 고기가 다 맛있어 모두 오랜만에 맛있게 먹었다. 2월은 남산 둘레길을 산책했다.

▶13회_ 회장 광정선



지난해 10월 20일 광목회원 및 13회 산악인 60명이 광교산 1000회 기념 산행 후 수지구청 부근 중화점에서 축하연을 가졌다. 13회 동창회의 10개 활동적인 소모임 중 하나인 광목회는 2003년 2월 13일 수지 주변 거주하는 몇몇의 광교산 첫 산행으로 시작되어 매주 목요일 비가오나 눈이오나 더우나 추우나, 더군다나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중단 없이 계속 산행하여 1000회를 달성하였다. 참석자들은 그간 1000회를 달성하기까지 노고가 많은 박성학 회장에게 찬사를 보내고 동호인들의 꾸준한 안전 산행에 서로 감사와 격려가 있었으며 앞으로 2000회까지 즐겁고 안전한 산행이 계속 되도록 기원하였다.





▶15회 회장 김성식

지난 12월 1일 3년만에 총회 겸 송년회를 갖고 67명이 모여 지난해 및 신년 사업계획과 예결산 보고, 새해 임원진 선출 등 회의를 갖고 기념촬영과 교가제창을 끝으로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또한 졸업 60주년 기념 국내외 여행에 관한 개략적인 계획 및 재미 동창들의 행사에 관하여도 보고하고 국내 동창들의 참여를 권장하였다. 미국에서 김선홍 동기가 20여년만에 부부동

반으로 귀국, 약 한달간 머무르면 동기 가을여행에 참석하고 오랜만에 동창들과의 해후를 즐겼다. 동학회 모임도 활발하여 산악회(회장직대 정동진)는 서울 근교 둘레길을 걷기도 하고 송년 모임도 하면서 건강과 우의를 다졌다. 당구 모임 (회장 김태경)과 바둑 모임(회장 최명욱)도 매월 정기 모임을 갖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나사모(회장 25회 이형권) 회원들은 거의 매주 고교 연합이 주관하는 보수단체행사에 참여하여 나라사랑에 적극 나서고 있다.

▶14회 회장 성경모



동기 전원이 회원인 14산악회는 새해부터 동기들의 체력을 감안해서 산행은 자제하고 둘레길이나 공원등 주로 평지경기로 많은 동기들이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방향을 조정하였다.

매월 첫 주 금요일에 실시하는데 예상대로 많은 동기들이 참여해서 1월에는 독섬 서울숲을 걸었고 2월에는 여의도 한강 수변길을 걸으며 즐거운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잠시 떠나 공기좋은 야외에서 친구들과 허물없이 담소나누며 걷는 시간이야말로 노년의 우리에게 신체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다들 잘 알기때문에 날이 따뜻해지면 더 많은 동기들이 참여 하리라 기대된다. 남동들만의 모임인 당구 흥백회는 정해진 인원제한 없이 시간나는 대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매 주 꾸준히 모여 게임을 즐기고 푸짐한 회식을 한다.

▶16회_ 회장 이상례



3년 만에 12월 16일 엘 타워에서 60여명의 동기생들이 모여 동창회를 하였다. 2023년을 대표할 동기회장으로 이상례 동기를 선출하고 그동안 못 만나 쌓인 얘기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새로운 회장단이 이제는 빗장이 풀어진 환경에 어울리는 동창회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기로 하였다. 조금 더 자주 만나는 16회가 되기를 계획하고 있다.

▶16회(왕)_ 회장 이진구

지난해 10월 27일 동창 38명이 강원도 원주 구룡사와 강원감영, 동화마을 수목원으로 가을 나들이를 다녀왔다.

3년 만의 공식적인 단체 소풍에 모인 동창들은 반가운 마음을 나



● 동기회 소식

냈고, 낙엽을 밟으며 단풍을 즐기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점심으로 빈대떡을 직접 부쳐 먹기도 하고, 보리밥 정식으로 저녁
을 먹고, 모두 건강하게 저녁 바람을 맞으며 서울로 돌아왔다.
2022년 12월 16일, 3년 만에 맞은 총회와 송년회에 40명이 참
석해서 그동안 미뤄왔던 이야기꽃을 피웠다.



아직도 건강하고 정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었음에 감사하
며 더욱 건강하기를 격려하고 또 다짐하는 시간을 보냈다.
한편으로는 3년 동안 이임식을 미루었던 전임 회장단에 대한 감
사의 표시로 작은 감사패를 만들어서 증정했다.

▶17회_ 회장 이강선



지난해 12월 7일 양재동 소재 브라이드 밸리에서 송년회가 있었
다. 101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회장 선거가 있었는데 후보 없이
투표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해외에 나가서 참석 못한 동문이 회장
으로 뽑히는 결과도 생겼다. 풍성한 선물과 경품 추첨, 노래자랑,
부르고 합창단의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로 동문과 어우러져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10개가 넘는 동호회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바 매주 산행하고
있는 산우회 산수회, 매달 바둑, 당구 모임도 꾸준히 기독교(신
우회), 가톨릭(가신회) 합동 모임도 1년에 2번 성지순례를 하며
신앙심도 키워가고 있다.

치매 예방 차원에서 동창회관에서 논어, 공자(한문) 공부도 하고
있는데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다. 올해 첫 사업으로 4월 3일 오
키나와 여행을 계획하여 37명의 참가 신청을 받아 순조롭게 진행
되고 있다. 나이 들을 오히려 행복해하며 누군가가 '만나자' 하면
생각보다 몸이 먼저 약속 장소로 향하는 건강한 17회, 화이팅!

▶18회_ 회장 류현상



70세 중반에 들어선 18회 동문은 올해도 열심히 모여 건강과 우
의를 증진할 것이다. 취미별, 주거 지역별 10개의 소모임은 18회
의 자랑으로 동기간의 유대를 끈끈히 하고 있다.

- 지역별(3): 서부지역강서회(김순애), 동부지역강송강진회(조
성완, 김혜자), 분당 걷기(송준기)
- 취미별(7): 바둑모임(함소님), 산악회(포천근, 김영옥), 합창모임
(화사모, 최정민, 이재임, 조종숙), 씨네마모임(윤선식, 장정숙),
여유회, 명승지 탐방(정강현), 공감만세, 문학탐구토론(심형구)
- 5월 중순에는 천리포 수목원과 예산 수덕사 방문을 포함한 서
해안 단체 관광을 계획 중이다.

▶19회_ 회장 강한규



2023년을 이끌어갈 새 회장단으로 강한규 회장과 장동원 부회
장이 선임됐다. 금년 동창회에서는 의욕적으로 여러 소모임과 동
창회원 간의 동행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소모임 회원들과 동창회
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
로 오는 2월 21일엔 청춘세화 모임에서 제천으로 눈꽃 기차여행
을 다녀왔다.

동기 산악회(회장 장기숙, 총무 김명재)는 1월 2일 관악산 둘레길
로 새해 첫 산행을 다녀왔다. 그간 계속되던 영하의 날씨 덕에 관
악산은 입구부터 설산! 날씨는 추워도 함께 걷고 이야기하며 점심
을 먹을라치면 추위는 멀리 날아가고, 우리는 까마득히 겨울로
당시절로 되돌아간다.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음에 더욱 감사하
면서 올해도 모든 또래들이 건강하게 만나 산행할 수 있기를 기원
한다.



▶20회 _ 회장 이종오, 김영옥



지난 12월 17일에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61명의 동문이 모여 총회 및 송년회를 가졌다.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이종오 신임 회장이 선출되었고 여회장 김영옥, 남총무 박종필, 여총무 윤금호, 감사 이우용이 선임되어 2023년 20회 동창회살림을 맡게 되었다. 이어서 전 중앙일보 사장 송필호 동문의 경제 패권에 대한 좋은 강의로 우리의 지적 호기심도 충족하였고, 동문의 많은 협찬으로 풍성하고 즐거운 송년회가 되었다. 올해는 우리 20회가 졸업 55주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는 5월의 셋째 주(15~19일)를 홈커밍 데이로 정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동문들도 함께하는 행사를 추진하기로 하여 55주년 추진 위원장으로 추대된 김인식 동문의 추진위원 6명이 멋진 행사를 위해 열심히 준비 중이다.

★행사일정: 5월15일 청와대 산책, 5월16일~17일 선유도 관광(1박2일), 5월19일 홈커밍데이행사

▶21회 _ 회장 김영수



21회 동기회는 2023년 1월1일 23기 회장단(회장 김영수 부회장 안희태 박해동 안희회 홍현숙) 출범 후 첫 행사를 2월 4일 토요일 시산제 시작으로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봄이 시작되는 입춘, 한결 따뜻해진 날씨에 완만한 인능산 자락에 모인 25명의 회원은 갖가지 시산제 제물을 진설하고 황준웅 토산회장의 분향강신, 오부근 전임회장의 초혼문 낭독, 김영수 신임회장이 아헌, 오전임 회장의 종헌 순으로 진행해 각자 헌주하고 음복하며 회원들의 건강과 즐거운 산행, 행복한 동기회가 되기를 산신령님께 기원하며 시산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어 2월 9일에는 각 동아리 회장단 모임을 개최해 동기회 1년 행사 계획 등 발전적인 의견 교환을 하는 자리를 가졌다.

▶22회 _ 회장 정인준, 김선옥



22회 동창회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회의가 1월 3일 총동회관 2층에서 있었다. 이 회의에서는 코로나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동창회를 이끌어온 이기선, 박정례 회장과 장세경, 정옥경, 남윤순 부회장, 임호순 감사 등 회장단이 그간 수행한 동창회 활동과 결산을 통해 지난날을 회고하고, 회계 등 전반적인 현황과 기록을 신임회장단에 인계하였다. 한편 정인준, 김선옥 회장, 김진완, 김연숙, 박남준 부회장, 정광인 총무, 송시영 감사 등으로 구성된 신임 회장단은 1월 19일 2023년도 제1차 임원회의를 갖고 선농축전 참여, 추억의 수학여행, 송년회 등 행사 일정과 소요 예산 등을 잠정 확정하였다. 동기 산악회인 무이회 회장에는 송시영, 정옥경 동문이 선임되었으며, 동기들의 많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둘레길 위주의 신년 산행 계획을 수립하고, 총동창회 산악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하였다. 한편 동기 당구 모임인 알알이회는 신규 회장에 채순기 동문을 선임하고 매달 둘째 토요일에 정기 모임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23회 _ 회장 손창조, 박해인



지난 2월 13일 임원진의 2023년 첫 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작년에 이어 회장직을 맡게 된 손창조, 박해인 회장은 올해도 내실 있는 동기회 운영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동기회 이사를 맡고 있는 이규용 동기는 2만원 짜리 와인을 좋아하는 털털한 친구이지만, 이번엔 큰일을 냈다. 미국 하버드의 케네디 스쿨이나 일본 마쓰시타의 정경숙을 뛰어넘는 싱크탱크를 만들어 한국의 뒤쳐진 정책개발의 산실을 만들어 달라고 본인의 모교인 성균관 대학교에 100억을 쾌척하였다. 23회에는 다양한 소모임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3+1(삼불원)이라는 건기 모임은 경치 좋은 산하를 걸으면서 건강과 우정을 쌓는 좋은 모임이다. 이 삼불원에서는 연말에 37명의 친구들이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 잔도길을 따라 걸었다. 소이산 모노





▶26회_ 회장 차경호

2년 동안 못했던 송년회를 엘타워에서 오랜만에 다시 개최했다. 날씨는 매우 추웠고 코로나가 다시 극성을 부리기 시작하는 시점이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진행했는데, 코로나에 걸린 몇 명의 친구들 빼고는 다 약속대로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었다. 그런 모습을 보니 나이가 들어갈수록 친구들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마음들이 느껴졌다.

1부는 이진형 총동창 신임 회장의 사회로 총회가 진행되어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순희 부회장의 회계 보고에 이어서 식사하면서 친구들과의 즐거운 담소 후, 2부 순서로 퀴즈와 조별 장기자랑으로 흥을 돋구었다. 모든 참가자가 상품권, 현금, 복권 등의 경품을 받아 신나는 여흥의 기분을 더욱 업시키며 송년의 아쉬움을 풀었다.

당구회는 여당은 매주 1회, 남당은 매월 2회의 정기 모임을 갖는다. 이번 연말에 두 번의 시합을 치렀는데 4구 대회는 남녀 혼합 복식으로 리그전을 치렀고 3구 대회는 단식 경기로 진행해서 열 띠고 치열한 시합을 가졌다. 특히 여동들이 몇 년 전부터 시작한 당구가 실력이 점점 일취월장하여 모두 놀라워했고, 지금은 수지 200을 목표로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 처음에는 많은 여동들이 같이 시작했으나 결국 끝까지 버틴 일곱 명의 여전사가 매주 만나서 뜨겁게 게임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 선배님들과도 교류할 수 있는 총동 여당 모임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큰 바람을 가져본다. 탁구회는 1월 7일 대전고 탁구팀과 친선경기를 가졌다. 이렇게 외부로 확장해서 시합을 자주 하면 더욱 강한 탁구회가 될 것 같다. 앞으로 많은 활동이 기대되는 모임이다. 산악회는 매월 1회 등산을 하는데, 12월에는 우면산 산행으로 한 해를 마무리했다.

레일을 타며 동심으로 돌아갔으며 철원노동 당사와 백마고지 탐방을 통하여 안보의식을 고취하였다.

▶24회_ 회장 박명숙



작년 졸업 50주년을 보내며 지난 50년 감사하고 앞으로 50년 더 감사하게 지내기로 하며 올 해 새로운 더 감사의 해를 맞아 앞으로의 시간을 오랜 친구들과의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기위해 여러 소모임 달리기·산악회·탁구회·문화탐방. 걷기. 당구등 활동을 적극 활용하여 매달 즐겁고 알찬 시간 보내기를 계획하고있다. 열심히 달려와 노을 앞에 선 우리를, 멋지게 나이 든 서로에게 감탄하고 기뻐하며 남아있는 날들을 재미있고 더욱 의미있게 함께 울타리가 되어 줄 친구들과의 놀이터가 펼쳐지리라 생각합니다.

▶25회_ 회장 강준석



헐떡헐떡 산행하는 친구들만 숨이 차는게 아니고 그냥 흘러가는 줄 알았던 세월도 호흡이 가쁘다. 토요일산행팀은 주로 둘레길을 걷거나 가벼운 산행을 하고, 일요일산행팀은 제법 힘든 산행도 어려움 없이 해낸다. 작년 12월 24일에는 토요일산행팀이 청와대 투어를 했고 오랜만에 좋은 시간을 가졌고, 1월 8일에는 일요일산행팀이 추운 날씨에도 청계산을 오르내리며 젊음을 확인했다. 또한 동기회 이사 10여명은 총동 총회 및 송년회에 참석하였고 찻집에 내려와 내년도 행사 준비를 위한 가벼운 논의 끝에 1월 10일 임시 이사회를 열기로 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이후 임시 이사회에서 행사별 담당자를 선정하고 일정도 다시 확인하는 등 본격적으로 50주년 행사 준비에 들어갔고, 3월 27일 정기이사회에서 모든 계획을 짚어볼 예정이다. 5월 16일부터 6



일간은 30회 김민호 동문이 운영하고 35회 조주영 동문이 큐레이터로 있는 종로 1가의 갤러리 <공간 미끌>에서 5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25회 친구들의 미술작품과 사진 등을 전시한다.

▶27회_ 회장 이한방, 이명숙



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른 일상회복이 되었다. 올 첫 번째 정기행사로 3월 18일(토) 여주 신륵사로 봄 소풍을 떠난다. 10시에 여주역에서 모여서 신륵사와 도자문화센터 등을 관람할 예정이다. 신륵사는 신라 진평왕 때 원효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진 대찰이다. 신륵사라고 부르게 된 유래로 '미륵이 신기한 굴레로 용마(龍馬)를 막았다'는 설이 있다. 중식은 맛집 '여주 쌀밥집'이다. 2월 8일에는 학창시절 3학년 2반 반창회로 13명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30회_ 회장 장세준



22년 송년회 이후 한달이란 시간이 너무 길었다. 우리 30회는 그런 텅을 참지못하지... 이번에는 서울의 서쪽 일산에서 뭉쳐보세! 요식업을 운영하는 강미숙동기가 이번에는 일산 MBC근처에 "카페-물"을 차렸겠다. 동기사업장도 보고 일산호수공원도 걸어보자~ 그렇게 15명 이 모여 새해 첫걸음을 같이 내딛었다. 30회동기회는 올해 졸업 45주년 기념행사를 자체적으로 가질 계획이다. 꽃피는 4월에는 경춘 열차를 타고 예전 수학여행가는 추억을 되살려볼까?

▶32회_ 회장 김정애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총동문산악회에서 팬데믹 이후 모처럼

장거리산행으로 원주 소금산을 주관하였기에 우리 동기 4명이 조출하게 다녀왔다. 마침 이번 산행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총동문산행 400회 산행으로 그 의미가 더 컸는데 하늘에서 축복의 눈까지 함박스럽게 내려줘 오래도록 추억에 남을 멋진 설경을 만끽했다. 올해부터 32회는 새로운 방식으로 회장을 선출하여 첫 회장으로 김정애 동기가 선출되어 기대가 크다.

또한 돌아오는 4월 2일에는 생전에 친구들을 끔찍하게 좋아하고 친구간의 돈독한 우애의 끈이 되어 주었던 정창호 동기가 영면한 지 10주년 되는 해이기에 그 친구를 그리며 오전 8시에 고양시 청아공원에서 추모식을 갖고, 생전에 즐겨 찾았던 관악산으로 추모산행을 다녀온 후 오후 12시~5시까지 종로 갤러리 '공간 미끌'에서 추모영상사진전을 가질 예정이다. 우리 32회 동기뿐만 아니라 그를 알고 계신동문도 함께 하신다면 더없이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다. (종로구 종로 74 영안빌딩 지하1층 공간미끌)

▶35회_ 회장 김영범



올해로 40주년을 맞는 35회는 '졸업 40주년 운영위원회'를 발족하고, 선농축전 참가, 40주년 가을 여행, 동기 산악회 운영 등을 논의했다. 또한, '40주년 행사를 위한 정기총회'를 통해 기금 마련과 35회 동기가 회장으로 있는 총동문산악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소금산 눈꽃등반'을 비롯해 2월 '2023 시산제' 등 총동문산악회 행사에 15명의 동기들이 참석했다.

▶36회_ 회장 김선경



지난 1월 29일(일) 오후 12시에 서울 종로 카페 '돌안'에서 운영진 상견례를 가졌다. 안건은 올해 총동 행사 및 기별 행사와 기금운영, 동호회(36 산악회, 술구회)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연중 계획으로는 4월 1일 동기산악회에서 서울둘레길 탐방, 6월 1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여름밤의 꿈과 11월 11일 가을피크닉이 계획되어 있다.



2023년도 신입 기별 및 지회 회장단

기별회장



4회 김정자



4회 정주영



5회 김순희



6회 안정원



6회 최광률



7회 주영숙



7회 윤승태



8회 손근수



9회 조동암



10회 김태무



11회 연흥숙



12회 강선중



13회 광정선



14회 성경모



15회 김성식



16회 이상례



16회 이진구(왕)



17회 이강선



18회 류현상



19회 강한규



20회 김영옥



20회 이종오



21회 김영수



22회 김선옥



22회 정인준



23회 박혜인



23회 손창조



24회 박명숙



25회 강준석



26회 차경호



27회 이명숙



27회 이한방



28회 이예선



29회 김경순



30회 장세준



31회 조택하



32회 김정애



33회 노용오



34회 지명수



35회 김영범



36회 김선경



37회 이승수





38회 한경균



39회 정거장



40회 이승재



41회 이재현



42회 김세환



43회 김도연



44회 정동균



45회 손경수



46회 윤석훈



47회 채웅석



48회 임성원

지회회장



14회 이종수
선농미술인회



15회 조종만
선농풍물단



16회 정만호
선농탁우회



17회 이근수
선농사진회



17회 최승우
선농회JRC



19회 이희범
선농과학기술인회



21회 고종환
그린필드



27회 박진배
부산지회



27회 임성팔
대전지회



26회 박해균
제주지회



26회 박화범
선농기우회



22회 김태식
충동합창단



24회 김기황
도서반



27회 김기명
선향회



30회 오호진
청구회



29회 이재훈
고양파주지회



29회 천세기
유우회



29회 현승익
역우회



30회 정지선
성우회



32회 김광복
선농사우회



34회 정정화
선향회



35회 차승환
충동문산악회



25회 이형권
나라사랑모임



28회 김영익
선향회



20회 정범순
선농여성전문인회



30회 이화근
재인동문회



● 임원회비 및 연회비 납부자 명단

“동창회 사랑은 연회비 납부로부터”

2022. 12. 11
~
2023. 02. 27

연회비 4만원, 모교발전기금 1만원입니다.
보내주신 연회비는 투명성과 합리적 관리 체계로
천하부고의 역사를 계승합니다.
사랑을 보내주신 동문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납부방법 (문의 : 사무처 02-588-7871)

- ▶ 무통장 입금 : 우리은행, 서울사대부고 동창회 계좌 1005-701-788162
- ▶ 지로 입금 : 동봉한 지로용지 이용 금융기관에 납부
- ▶ 현장 납부 : * 각종 행사시 동창회에서 접수 창구 설치 예정
* 동창회관 2층 사무처에서 연중 접수

임원회비

회장회비 (200만원)
이진형(26회)

부회장회비 (100만원)

김인자(26회), 노희숙(26회), 박성환(26회),
백준기(26회), 신용경(26회), 유서영(26회),
차경호(26회), 최상방(26회), 최희경(26회),
현숙희(26회), 김진혁(27회), 심상인(27회),
이옥식(28회), 장덕상(30회), 김영준(32회),
최치영(36회), 홍지숙(36회), 현숙원(44회)

감사회비 (40만원)

기별회장회비 (40만원)

강한규(19회), 이종오(20회), 김영수(21회),
손창조(23회), 박명숙(24회), 장세준(30회),
김정애(32회), 노용오(33회), 지명수(34회),
김선경(36회), 임성원(48회)

이사회비 (20만원)

김명자(14회), 황혜선(14회), 구화자(15회),
김경애(15회), 진근찬(16회), 김혜령(17회),
이병림(17회), 정인숙(17회), 김인선(19회),
한정희(19회), 김경오(20회), 김승우(20회),
김창수(20회), 김태수(20회), 송리라(20회),
이기정(20회), 이재승(20회), 노부호(21회),
박해동(21회), 안희영(21회), 안희태(21회),
조석순(21회), 한민덕(21회), 홍현숙(21회),
권영철(22회), 김기령(22회), 원세현(22회),
윤소영(22회), 이홍자(22회), 정운정(22회),
최도성(22회), 김중희(23회), 박해인(23회),
배성숙(23회), 이규용(23회), 이지용(23회),

정관용(23회), 정성식(23회), 정윤용(23회),
이경희(24회), 이기찬(24회), 이사랑(24회),
조규식(24회), 김은선(30회), 이화근(30회),
김미미(34회), 이경미(34회)

기별분담금

50만원 : 48회 / 50만원
100만원 : 19회, 20회, 21회, 36회 / 400만원

연회비

- 1회 : 故박봉배 (1명)
- 2회 : 김여순, 변용성, 정현태 (3명)
- 3회 : 김영이, 백남수, 이의영 (3명)
- 4회 : 김영순, 김인수, 김민수, 김정자, 유지한, 최정숙 (6명)
- 5회 : 김종오, 나금순, 박세춘, 신현태, 이해영, 임공빈 (6명)
- 6회 : 김명국, 안인선, 이순원, 이재분, 이종열, 임은경, 홍성일 (7명)
- 7회 : 김형숙, 김충한, 목요상, 박성호, 심영보, 안정순, 이봉주, 이용분, 이재원, 정숙경, 주영숙 (11명)
- 8회 : 김상열, 김익재, 김태련, 송복경, 우종삼, 이묘범, 이꽃자, 이창배, 홍순자 (9명)
- 9회 : 고화영, 김덕기, 김지현, 김태환, 민대식, 변금진, 양현순, 이기준, 전수영 (9명)
- 10회 : 권혁춘, 김연기, 김윤순, 김주영, 김중환, 박귀희, 박인재, 서군자, 염준세, 이규식, 이선호, 이윤주, 이종구, 이창배, 조정호, 최관용, 최중서, 하영환, 한규섭, 한은희 (20명)

11회 : 강신종, 강창호, 권오경, 김영송, 김정자, 류재호, 민완기, 박창욱, 신혜숙, 이광용, 이연섭, 이정자, 이창동, 정영자, 정지우, 최영자 (16명)

12회 : 김영철, 김철회, 김희춘, 박수일, 박영자, 심현설, 안광자, 원병희, 유승웅, 이문영, 이정자, 임영자, 정광호, 조준제, 한걸택, 호문익, 황원섭 (17명)

13회 : 강양빈, 곽정선, 김봉환, 김수창, 김영일, 김용인, 나길웅, 박영범, 백수목, 백효휘, 손문익, 심순식, 오백함자, 원준자, 윤병수, 이석호, 이원호, 이용웅, 이의돈, 이정국, 이철용, 이치운, 이해민, 이 형, 이형택, 이희자, 임경자, 장순주, 전 관, 조정자, 조한익, 최규순, 최부일, 홍혜자 (34명)

14회 : 고문자, 권철해, 금정호, 김동호, 김성자, 김종욱, 박준삼, 변정선, 변종홍, 서정숙, 안양훈, 엄숙자, 윤덕중, 이건우, 이규중, 이대경, 이병일, 이순민, 이창홍, 이태윤, 전문자, 조경자, 조영자, 조완숙, 조중하, 채혜자, 최명상, 최철건, 하민영, 허수창, 홍창용, 황대현, 황혜선 (33명)

15회 : 강영옥, 구화자, 권순옥, 김경숙, 김경애, 김경자, 김귀자, 김동철, 김명자, 김보혜, 김성식, 김수자, 김승춘, 김명갑, 김정윤, 김종걸, 김진홍, 김태경, 김중홍, 박 승, 박원세, 박정욱, 백정현, 성옥희, 손용구, 송위섭, 신현철, 왕진수, 윤계섭, 윤병걸, 윤철선, 윤홍자, 이경자, 이부자, 이승관, 이승자, 이윤이, 이정복, 이종웅, 이태경, 임돈희, 장규식, 장기중, 전행자, 정동진, 정명자, 정성소, 정은목, 정혜경, 조성환, 조종만, 주성수, 진창수, 채영세, 최명옥, 최원명, 황동규 (57명)



- 16회:** 강기종, 강인자, 김명현, 김양자, 김종숙, 맹해열, 박경환, 박정숙, 신동복, 이상례, 이석영, 이순경, 이승희, 이정희, 이종건, 이후영, 장용웅, 정영경, 정영숙, 정진구, 정태영, 천주훈, 한동건, 홍사순, 황양순 (25명)
- 16왕:** 김병만, 김순자, 김장환, 김종건, 박영순, 이경우, 이광로, 이근자, 진근찬, 최인상 (10명)
- 17회:** 강신호, 강창길, 경의영, 권유중, 김명자, 김백균, 김성호, 김영철, 김영희, 김정희, 김종철, 김홍기, 나진옥, 노창무, 박준희, 박충자, 박해영, 박해우, 송병길, 신길승, 신진우, 엄영섭, 오동건, 유기동, 유지현, 유진방, 윤현모, 이광성, 이문연, 이병림, 이병한, 이성용, 이성환, 이일희, 이화연, 이효은, 이희림, 임재홍, 임정엽, 장문선, 장경민, 장정수, 정기현, 정영애, 정병조, 정정선, 정인숙, 조정자, 채화자, 최승우, 황광익 (51명)
- 18회:** 고순호, 권오성, 김경희, 김용배, 김태두, 류현상, 오진영, 유재희, 이광렬, 이덕연, 이명섭, 이재임, 장광준, 전동수, 정준양, 정택주, 진영윤, 표천근 (18명)
- 19회:** 김동진, 김명기, 김명복, 김윤신, 김인선, 김중현, 김해성, 문창석, 박 찬, 박현숙, 서지영, 송영옥, 신태건, 유옥자, 이규성, 이기훈, 이상분, 이옥용, 이지영, 임석재, 임재봉, 장동원, 한정희, 현영옥, (24명)
- 20회:** 강은자, 강진경, 고성순, 고승범, 구관서, 권오준, 김경오, 김기순, 김상현, 김수혜, 김영순, 김영옥, 김용민, 김 인, 김종규, 김진분, 김진수, 남기윤, 민성남, 박동욱, 박상연, 박수향, 박영순, 박영옥, 박충남, 손정순, 송리라, 송태영, 신은승, 양균석, 엄공섭, 원성자, 윤금호, 윤두중, 이경선, 이기상, 이상린, 이성규, 이우용, 이종오, 이종일, 이찬민, 이찬형, 이해완, 이호림, 임광수, 임희규, 정기준, 정범순, 정주식, 정철화, 조남철, 조문행, 조순희, 조영익, 차성은, 채성준, 하정태, 한규현, 한희숙, 황인규 (61명)
- 21회:** 강권철, 강정희, 구순화, 김기영, 김미화, 김여영, 김영수, 김용빈, 김용철, 김원근, 김주완, 김해진, 김해경, 김혜순, 노부호, 노시청, 민해옥, 박수영, 박혜옥, 서정근, 송완영, 안희태, 엄익환, 오부근, 오정희, 윤기정, 윤치훈, 윤항수, 이영화, 이은식, 이창걸, 이해문, 임재복, 전제녀, 조석순, 지운업, 차현덕, 한대교, 황준용 (39명)
- 22회:** 강인숙, 고석현, 김금랑, 김성철, 김숙정, 김인걸, 김진영, 신안섭, 심영보, 유인섭, 이상환, 이수태, 이필녀, 이홍숙, 이홍자, 정광인, 정옥경, 정윤정, 정인준, 정진대, 채순기, 한순일, 한승훈, 허무정, 허승근, 홍사건 (26명)
- 23회:** 김성현, 김순호, 김영희, 김우식, 김정영, 김진국, 김태현, 김태홍, 맹형열, 문인화, 박상욱, 박정화, 배환기, 송명길, 신기수, 안성근, 윤명자, 윤영규, 이경제, 이명자, 이만기, 이현식, 정재희, 정태영, 조동순, 조양래, 조환복, 채희금, 최정애, 한홍자, 홍복기, 홍현숙, (32명)
- 24회:** 강영숙, 강은민, 강인화, 강준원, 강준환, 계영희, 김경남, 김경순, 김경애, 김경희, 김교빈, 김기항, 김남걸, 김도태, 김명민, 김영철, 김유준, 김인성, 김재신, 김종식, 김진경, 김태갑, 김한상, 김해동, 김해경, 김혜란, 김혜선, 김화순, 남정애, 노남식, 문상영, 문재현, 문준애, 민경수, 박명숙, 박명희, 박성영, 박승순, 박윤진, 박정은, 박주업, 배형수, 백연화, 백영란, 변형완, 서광호, 선성규, 손일형, 송기옥, 송영훈, 송인기, 송한식, 신광선, 신영숙, 신영진, 신용복, 심기윤, 심명숙, 유병욱, 윤미용, 이경희, 이근석, 이기순, 이기찬, 이사랑, 이상범, 이영원, 이영자, 이인숙, 이재홍, 이종래, 이진순, 이태중, 이항희, 임상수, 임정훈, 임혜영, 전준현, 정경훈, 정교철, 정근섭, 정문호, 정우교, 정인숙, 정현옥, 조규식, 최경자, 최광무, 최명원, 최상준, 최성식, 최영귀, 최옥수, 최형기, 최희영, 한정화, 한주숙, 허기열, 허동욱, 홍리매, 홍성주, 황기하 (102명)
- 25회:** 강윤창, 강태숙, 김명희, 김정근, 김정숙, 김토진, 김혜석, 배원중, 서병일, 심상덕, 안희태, 윤상학, 이석용, 이성일, 이수자, 이양복, 이영규, 이형권, 이 훈, 장 신, 조순자, 조은순, 조현주, 한영순, 홍성태 (24명)
- 26회:** 권영선, 김경옥, 김순희, 김영실, 박광모, 신용경, 유양순, 윤석균, 이용은, 정정이, 조순정, 차경호, 최애자 (13명)
- 27회:** 계용준, 고광옥, 권현수, 김기명, 김명숙, 김지현, 김진혁, 김현숙, 남천현, 박승철, 심상인, 이경원, 이난희, 이명숙, 임윤규, 정연실, 진양교, 한현우 (18명)
- 28회:** 김한길, 민동준, 송예빈, 이광구, 이예선, 조석현, 조영수 (7명)
- 29회:** 김판규, 노명환, 안성용, 양경미, 연경희, 원예연, 유보형, 이재훈, 이정준, 허석자 (10명)
- 30회:** 강미숙, 곽윤수, 김대진, 김영춘, 김은선, 박귀희, 박재웅, 박찬호, 성혁진, 송원기, 신선미, 안태현, 오호진, 이선구, 장덕상, 장동권, 장영석, 정연삼, 태종순 (19명)
- 31회:** 강명준, 김동백, 임해진, 정시현, 정하영, 한경준, 한순영 (7명)
- 32회:** 권희안, 김광복, 김상숙, 김영준, 김정애, 나기훈, 박무선, 배병철, 임영희, 정소희, 최흥병, 황영자 (12명)
- 33회:** 김경원, 김광훈, 노용오, 엄기섭, 지동희 (5명)
- 34회:** 강구창, 박봉우, 이원중, 정정화 (4명)
- 35회:** 김경혜, 김명자, 김미경, 김영범, 김영숙, 김은호, 김창현, 조용식, 주리원, 차승환 (10명)
- 36회:** 김경원, 류한경, 이원섭, 이화진, 장임철, 최병석, 최치영, 허정윤, 홍성표, 홍지숙 (10명)
- 37회:** 김경대, 오현주, 이승수, 황승경 (4명)
- 38회:** 박영애, 오인환 (2명)
- 39회:** 박동균, 최선옥 (2명)
- 40회:** 김현정 (1명)
- 41회:** 박기홍, 임재승 (2명)
- 42회:** 조일행, 한정민 (2명)
- 43회:** 김연중, 김태균, 이승환 (3명)
- 44회:** 김형관, 안주덕, 현숙원 (3명)
- 45회:** 이승진 (1명)
- 46회:** 오 룡 (1명)
- 47회:** 김선경, 박성용, 정혜영 (3명)
- 48회:** 권형탁, 김성진, 박종학, 윤서인, 임성원 (5명)
- 49회:** 조영승 (1명)

• 무기명 : 16명 • 납부인원 : 805명



서울사대부고를 졸업하며 부고였기에 가능했던 일이 많았습니다

졸업생 김수영 (75회)



안녕하십니까. 75회 졸업생 김수영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어느새 3년의 세월이 지나 사회로 나아가려 합니다. 제게 있어 3년간의 고교생활은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것만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저를 만들어 나가는 정말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자치 조화와 선농제와 같은 학교 행사들을 오프라인으로 진행에 있어 학교의 구성원들 간의 소통을 통해 확진자 한 명 없이 무사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 직접 수강해서 들은 과목과 동아리 활동을 통해 제가 나아가고자 하는 분야에 관해 친구들과 함께 탐구할 수 있었던 것은 부고였기에 가능했던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3년간의 고등학교 생활은, 모두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었기에 존재할 수 있었고,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키워주셨기에 존재할 수 있었고, 선생님들께서 정성으로 보살펴 주셨기에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졸업생 이한서 (75회)



안녕하세요. 75회 졸업생 이한서입니다.

대학 입학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사대부고에서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비록 3년간 코로나19라는 보이지 않는 큰 장벽 때문에 다른 졸업생 선배님들보다는 사대부고에서 보낸 시간이 적지만, 너무나 많이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던 3년이었습니다.

1학년, 코로나19로 기대하던 고등학교의 처음 생활이 작은 방의 책상이었지만, 새로운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해 보자는 마음으로 활기차게 시작했던 1학년이었습니다.

2학년, 계속된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회 부회장으로서 1학년 때보다는 학생들에게 좀 더 다양한 오프라인 활동을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임원 수련회를 통해 오프라인 체육대회 실시 등의 학생들의 여러 의견을 받고, 실제로 반영할 수 있었던 정말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3학년, 입시를 앞두고 긴장되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다양한 세부 활동을 하며 제 학문적 견해를 넓힐 수 있었고, 자소서와 면접 준비를 하며 저 자신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대부고에서의 3년은 저를 정말 많이 성장시켜주었습니다. 이때의 경험과 배움을 항상 기억하며 더 넓은 세상에서 바른 사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동창회 선배님들과의 만남을 통해 사대부고 동창회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좋았고 앞으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써 5월이 기대돼요ㅎㅎ



이한서



신소윤

친구들과 총동창회 선배님들을 만나 오랜만에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총동창회에 대해 알아갈 수 있던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사대부고 졸업생인만큼 애정을 갖고 선배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자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동창회 선배님들과 함께할 수 있어 재밌는 시간이었고, 5월 선농축전을 시작으로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민재





이제 총동 가족이 되었네요. 환영합니다.

75회 졸업생 227명 명단

1반 (28명)

강민준 김상범 김서현B 김소민 김예원 김유진 박수현 박예은 박종호 박지윤
박지현 서윤교 신성훈 오수용 유환주 윤상훈 윤정연 이태규 이한서 임서연
장연우 정은재 지성빈 최규락 최지혜 표영빈 하은서
LABATI EMOSI TAIMALAWAI NAVUSOLO(모시)

2반 (28명)

김시는 김유정 김찬영 김해민 민승윤 서지아 송동민 신서연 신유빈 우태현
원소연 유다영 이수민 이슬훈 이재혁 이재현 이하은 임민규 정 훈 조민준
지유민 지희주 채승범 최진혁 한승아 허예림 홍성민 홍수민

3반 (29명)

강민정 강종현 권순재 김가는 김수영 김은총 김현진 노정민 박민채 박성민
박승찬 송용훈 유현지 이진희A 이다희 이민규 이수빈 이용규 이제우 이한걸
장예랑 정서연 최용우 최원빈 최정원 표민기 한예준 허주원 황윤희

4반 (29명)

강송희 김민재B 김민정 김병규 김주환 김하늘 문지원 문지유 박민서 박시현B
박연주 박준호 심영찬 안혜원 여민서 오지원 오지현 유성준 이 겹 이서진
이승혁 이재원 이태연 이현우 장경훈 전지민 조운주 주시현 최민혁

5반 (28명)

강진규 권성업 김백준 김서연 김선우 김소연 김원수 김재현 라예슬 박동현
박소정 박태영 방초원 서유림 심 건 유수민 윤시원 이세립 이우진 이주희
이호준 전지인 정민재 정지우 최원재 최지우 홍석준 홍세인

6반 (29명)

강윤희 강준혁 고별희 고윤서 구본준 김규리 김동현 김민주 김병관 김지민
김지영 김지원 김재연 김태환 나영빈 박준영 신다정 신소윤 이교은 이선우
이은지 이준서 이지환 전지영 정지민 진광성 한원빈 함송희 황수인

7반 (28명)

구세희 김나현 김나현 김민재A 김민지B 김범수 김서현A 김성진 김준호 김지훈
김재현 박시열 박예란 배동기 백선우 백승주 서동민 손 효 아광현 이재희
이창민 이혜린 장윤선 정기주 정민승 차현석 한지호 황지연

8반 (28명)

강승우 김민지A 김부현 김시원 김종영 김준용 김호현 노 윤 박시현A 박은혜
박현빈 안영진 유서현 윤성지 윤하경 이성민 장세빈 정진우 조유진 조정희
조현우 조형준 주사랑 주혜린 최준수 한희주 홍지승 황은비



제75회 졸업식, 총동창회 임회식

2023년 1월 4일 제75회 졸업식이 선농홀에서 거행되었다. 올해는 작년, 재작년과 달리 졸업생이 한 곳에 모두 모여 식을 치를 수 있었다. 다만 학부모까지 참여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졸업식 후 운동장에서 졸업 가운을 입고 가족과 함께 기념 사진을 찍는 모습에서 예전으로 돌아간 분위기도 느낄 수 있는 졸업식이었다.



졸업식 후 이진형 총동창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총동창회 임회식에서 227명의

새 식구를 맞이하게 되어 천하부고 졸업생의 수는 27,957명이 되었다.

도서관 새 단장

학교 도서관이 겨울방학 동안 새 단장을 했다. 이번 공사는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지원으로 이루어졌는데 서가 확충과 접근성 확대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결과 이전보다 2000권 이상의 책을 전시할 수

있는 서가가 생겼고 슬발과 바로 이어지는 출입문을 신설하여 외부에서 도서관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였다. 앞으로 도서관 기본도의 도서 대출 반납의 기능에서 수업, 학습, 휴게 공간으로 역할을 다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AI교실 확충

방학 기간 부설학교진흥원 1층에 마련한 AI교실을 확충하는 공사를 완료하였다. 2020년부터 신나는 AI교실 시범학교로 선정되어 교육청의 예산 지원을 받아 AI 관련 수업을 진행하는 시설을

마련했다. 금번 공사는 3D 프린터실 안전 장치, 수업 교구 보관용 불박이장 설치, 수업 교구 구입 등 기존 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어 진행했다. 그 결과 AI교실이 완비되어 이곳이 미래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기능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2023년 전·출입 교사

가시는 분

국어	최인영	생물	최종훈	국어	박기순	미술	최미나
사회	정진화	영어	박유진	윤리	함유정	영어	김지혜
수학	허철호	정보	오상희	체육	황인성	진로	이영선

오시는 분

국어	김유리	수학	민경실	정보	김민규	미술	백수연
국어	민재식	생물	정보현	국어	이누리	영어	이산호
사회	이병인	영어	김미영	체육	이민재	보건	남은혜
수학	유다정						









인류와 지구의 행복 ESG 경영으로 영원해집니다



방글라데시에 300만평의 숲을 조성하여
130여종의 동,식물들이 다시 숨쉬는 땅으로!

전 세계 곳곳에
Roof-Top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비하여
저탄소 고효율의 친환경 에너지로!

교육기관 및 사회단체를 지원하여
누구나 희망을 이룰 수 있는 세상으로!

영원무역의 ESG경영이 만드는 것은
자연과 사람 그리고 기업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행복'입니다

YOUNGONE
SINCE 1974

